

희망은  
결코  
늦은 법이  
없습니다

희망제작소 2016 활동보고서

희망은  
결코  
늦은 법이  
없습니다

희망제작소 2016 활동보고서

## ★ 차례

- 02 인사말
- 04 희망제작소 소개
- 06 걸어온 길
- 12 2016 희망제작소 이야기
- 14 사진으로 보는 열두 달
- 16 희망의 흔적
- 18 희망의 발자국
- 22 해시태그로 보는 2016년 활동
- 28 살림살이 - 2016 재정보고
- 30 참 고맙습니다 -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이야기
- 32 후원회원님께 물었습니다
- 36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기부천사, '1004클럽'
- 40 희망을 만드는 오피니언리더 모임, '호프메이커스클럽(HMC)'
- 42 강과 산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후원회원 모임 '강산애'
- 43 밤 한 술에 감동 있는 이야기를 더한 감사의 레시피 '감사의 식탁'
- 44 2016 후원회원의 밤 '희망을 더하다, 더불어 희망하다'
- 46 희망제작소 연구원 이야기
- 48 잊을 수 없다. 연구원이 뽑은 2016 키워드
- 50 점쳐본다. 연구원이 뽑은 2017 키워드
- 52 희망제작소, 그것을 알려주마
- 56 연구원이 보내는 편지
- 58 지혜의 숲
- 60 2017년 희망제작소는
- 62 희망의 별
- 68 희망제작소 사람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 윤민석 노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중

발행처 희망제작소  
발행일 2017년 3월 27일  
발행인 박재승  
주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27  
(평창동 290-11, 비전빌딩 2~4층) 우) 03008  
전화 02-3210-0909  
팩스 02-3210-0126  
홈페이지 www.makehope.org  
페이스북 facebook.com/hopeinstitute  
블로그 blog.naver.com/hopeinst  
디자인 the DNC(www.thednc.co.kr)

\* 이 보고서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활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책은 지구환경을 생각해 표백·형광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종이로 만들었습니다.

절망이 엄습하는 시대,  
그러나 시민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민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결코 늦은 법이 없습니다.

# 시민 중심의 행동하는 연구소,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제작소 이사장 박재승입니다.

2016년은 희망제작소가 세상에 발을 내디딘 지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희망제작소는 더욱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지지하고 후원해주셨습니다. 덕분에 희망제작소는 한국사회에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희망제작소는 새로운 10년을 맞이합니다. 희망제작소가 뿌린 희망은 곳곳에서 뿌리내리고 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희망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갈수록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해져 자살, 범죄, 세대 갈등 등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될 청년들에게는 언제부턴가 ‘흙수저’, ‘N포 세대’ 등 비관과 절망의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작년 희망제작소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희망인식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희망적인지 물었더니, 10점 만점에 4.37점이 나왔습니다. 100점 만점에 44점인 셈입니다. 여기에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유린당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사회를 바꾸기 위해 시민이 나섰습니다. 추운 날씨의 매서운 바람에도 많은 시민이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목소리와 손에 들린 촛불은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은 이토록 위대합니다. 이는 희망제작소가 창립 초기부터 중요하게 여긴 가치입니다. 광장에 모인 수백만 인파는 이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는, 시민 중심의 행동하는 연구소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선택받은 소수가 아닌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정진하겠습니다. 더 많은 희망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건강한 토양으로 가꿔나가겠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현장 경험과 성과가 든든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이사장 박재승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의제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 이런 가치를 추구합니다

**독립**  
정부나 기업의 출연금 없이 설립된 독립적인 민간연구소입니다.

**참여**  
시민의 후원과 참여로 열린 연구와 실천을 지향합니다.

**현장**  
해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옴튼 지혜로 대안을 찾습니다.

**지역**  
지역은 우리 삶의 자양분이며 국가의 중심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실용**  
연구와 실천을 병행하는 21세기 싱크앤두탱크(Think&Do Tank)를 추구합니다.

**대안**  
성장주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인간, 생태, 문화 중심의 대안을 고민합니다.

**종합**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특정 문제에 관한 해법을 종합해 대안을 제시하고 거대담론을 이끌어냅니다.

## 이런 일들을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 3월 창립 이후 초고령화, 경제불평등, 사회양극화, 고용불안, 낙후한 정치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 시민과 함께 대안을 찾고 정책을 연구해 왔습니다. 추상적인 이론과 정책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깊이 뿌리내린 실천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많은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했습니다.

**사회창안**  
시민의 아이디어와 제안이 현실·정책화 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사회창안 플랫폼을 개발하고 대안 중심의 시민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시민성 회복**  
시민의 일상을 변화시킬 사회의제를 발굴하고, 시민성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사회참여**  
퇴직(예정)자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익적인 곳에 활용하면서 두 번째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현장중심의 지역연구를 통해 지역 고유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과 중앙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우리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고 변화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에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 \* 걸어온 길

## 2005

8월 8일 희망제작소 설립 제안



## 2007

- 1월 31일 제1기 의원학교
- 2월 9일 지역연구 공모사업
- 3월 21일 조례포럼
- 4월 20일 재난관리연구소 연속세미나
- 6월 5일 호민관클럽 결성식
- 6월 19일 제1기 간판디자인학교
- 7월 11일 제1기 해피리포터 발대식
- 7월 18일 우리나라 옥외광고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 8월 2일 자치재정 월례포럼
- 8월 24일 간판별동대 발대식
- 9월 10일 제1기 행복설계아카데미
- 10월 25일 농촌희망본부 기획강좌
- 11월 21일 지역홍보센터 개관

## 2008

- 1월 8일 제1차 희망소기업 충전식(充電式)
- 1월 25일 착한전문가모임 발대식
- 2월 13일 지역재단포럼
- 3월 28일 Soci知Factory 대학생 사회적기업가 세미나
- 5월 26일 제1기 소셜디자인스쿨(SDS)
- 6월 20일 제1기 좋은시장학교
- 7월 22일 호민관클럽 창립식 및 기념 토론회
- 7월 24일 제1기 희망통번역단 '고리'
- 9월 18일 제1회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지역재생과 자립을 위한 대안 찾기'
- 10월 9일 사회창안주간 국제회의의 '경계 없는 사회창안'
- 10월 11일 불만함창단 페스티벌
- 11월 25일 제1회 해피시니어어워즈



## 2006

- 1월 9일 제1기 연구원 공채
- 2월 25일 창립 발기인 총회
- 3월 27일 희망제작소 창립 창립기념 사진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희망씨' 창립기념 국제세미나 '싱크탱크와 우리시대 희망찾기' '우리시대 희망찾기' 프로젝트
- 5월 1일 '작은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꿔라' 시민 아이디어 공모
- 6월 15일 제1기 시장학교
- 11월 24일 제1회 와글와글포럼



## 2009

- 3월 27일 창립 3주년 기념 후원의 밤 '...그래도 나는 희망한다'
- 4월 21일 호프메이커스클럽(HMC) 창립
- 5월 9일 제1기 모금전문가학교
- 6월 3일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설립 운영 및 운영방안 연구
- 6월 7일 NPO정보센터 개소식
- 7월 24일 김치찌개데이
- 8월 21일 제1기 NPO경영학교
- 9월 4일 목포시 역사문화의 길 기본계획 연구
- 11월 21일 제1기 사회혁신기업가 아카데미
- 12월 22일 1004클럽 출범



2010

- 1월 24일 강산애
- 3월 21일 제1기 희망별동대
- 4월 13일 제1기 지혜를 포스팅하라
- 5월 12일 시니어사회공헌사업단 LET'S 발대식
- 6월 5일 제1기 퇴근후Let's
- 6월 19일 소셜이노베이션캠프36(SICAMP36)
- 9월 2일 제1회 아시아 NGO 이노베이션 서밋(ANIS)
- 9월 7일 목민관클럽 창립
- 9월 11일 세상을 바꾸는 1천개의 직업
- 11월 3일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지역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대안, 커뮤니티비즈니스'



2012

- 2월 4일 제1기 희망별
- 2월 25일 제1기 마을이 학교다
- 4월 18일 시니어소셜미디어스쿨
- 5월 22일 제1기 시니어착한경제아카데미
- 6월 11일 강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 7월 8일 소셜이노베이션로드 아시아(SI Road Asia)
- 9월 14일 제1기 협동조합 창업 아카데미 Let's COOP
- 9월 22일 서울시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경진대회
- 10월 27일 좋은 서울 만들기 대학생 공공서비스디자인 캠프
- 11월 29일 제1회 사회혁신기업가 포럼
- 12월 14일 문화예술교육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별별솔루션' 시리즈 포럼



2011

- 1월 12일 여행사공공 창립
- 2월 1일 창립 5주년 프로젝트 '박원순의 희망열차'
- 2월 19일 수원시민창안대회 최종결선대회
- 2월 24일 커뮤니티비즈니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종결선대회
- 3월 7일 희망열차 전국 순회
- 4월 15일 광주시 광산구민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연구
- 5월 19일 창립 5주년 기념 콘퍼런스 '잘하고 있습니까'
- 5월 28일 제1기 커뮤니티비즈니스 귀농·귀촌 아카데미
- 6월 3일 창립 5주년 기념 후원의 밤 '맛있는 감사'
- 6월 27일 뿌리공부방 - 지역을 재생시키는 대안경제 이야기
- 7월 1일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국내외사례 조사연구
- 8월 20일 제1회 디이노베이터 시리즈
- 8월 27일 부천시민창안대회 본선 발표회
- 9월 20일 한독도시교류포럼  
'독일 도시 브레멘과 라이프치히의 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 이야기'
- 10월 28일 수원시평생학습관 위탁 운영
- 11월 15일 제1호 목민광장 발행



2013

- 2월 20일 감사의 식탁
- 3월 5일 KB희망센터 설립
- 3월 22일 제1기 BIGS 프로젝트
- 5월 6일 제1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
- 6월 21일 창립 7주년 기념 후원의 밤 '희 스토리'
- 7월 6일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
- 7월 13일 서울시 동북4구 원탁회의
- 10월 17일 농업·농촌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 10월 19일 청년인생학교
- 10월 26일 동네한바퀴in성남
- 11월 6일 제1기 시니어NPO학교



2014

- 2월 15일 휴먼라이브러리 창립자 초청 강연 및 콘퍼런스
- 4월 2일 완주군 농촌활력사업 정책평가 연구
- 6월 27일 사회적경제 핵심인재 육성센터 개소
- 6월 27일 전주시 대학로 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 7월 18일 한국을 바꾸는 천개의 행동 '노란테이블'
- 8월 21일 노란테이블 토론진행자(퍼실리테이터) 교육
- 8월 23일 세대공감프로젝트 '사과캠프'



2016

- 3월 15일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 3월 16일 제1호 희망이슈 발간
- 5월 9일 광주 서구 참여소울(주민토론회)
- 6월 15일 창립 10주년 기획연구 '시대정신을 묻는다' 결과 발표 간담회
- 6월 26일 청소년 창직지원 '내-일상상 프로젝트'
- 7월 30일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시즌 ②
- 7월 30일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운용모델 공동연구
- 9월 16일 지속가능발전시스템 운영매뉴얼 연구(거버넌스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 9월 29일 좋은 정치를 위한 고품격 수다의 장 '정치잇수다'
- 10월 12일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 포럼
- 10월 15일 직장인 인생설계 교육 '퇴근후렛츠 플러스'
- 11월 21일 아름다운재단 사업범주 '변화의 시나리오' 연구용역
- 11월 21일 창립 10주년 기념 콘퍼런스 '2016 시민희망지수'
- 12월 6일 다문화정책 연구보고서 - 새로운 모색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 12월 10일 시민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쓸모있는 걱정 - 원자력발전 편'
- 12월 16일 2016 후원회원의 밤 '희망을 더블하다, 더블어 희망하다'

2015

- 2월 28일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소설픽션콘퍼런스
- 3월 28일 2045 대한민국, 말하는 대로
- 4월 16일 0416 잊지 않았습니다
- 7월 6일 달팽이공부방 - 유럽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례
- 8월 22일 청소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OO실험실'
- 9월 11일 제1차 완주희망포럼
- 9월 18일 바꾸자대학포럼
- 10월 1일 서울 성북구 지역거버넌스 참여관찰 연구
- 10월 5일 제1회 사다리포럼
- 10월 31일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워크숍
- 11월 7일 노란테이블 시즌 ②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 11월 24일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시즌 ①



사회혁신을 이끈 희망제작소 10년,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이끌  
민간 싱크앤두탱크로의 재도약



# 사진으로 보는 열두 달

“전주의 사회혁신 현장을 둘러보고 있어요.”



“마을에서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려면 공론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희망제작소 10년, 후원회원님 덕분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위험해요.”



“희망키트로 희망을 쓰고 그려보세요!”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내가 좋아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어요.”



1월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1차 정기포럼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품다'

2월

달팽이공부방  
'신리를 기반으로 마을공동체 활동하기'

3월

후원회원과 함께하는 '감사의 식탁'

4월

창립 10주년 기획연구 '시대정신을 묻는다'

5월

창립 10주년 기념 후원회원 확대 캠페인  
'당신의 책상 위에 희망을 놓아드립니다'

6월

청소년 창직지원  
'내-일상상 프로젝트'

7월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시즌 2  
'나의 일 이야기 - 릴레이 워크숍'

8월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교육

9월

2016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최종결선대회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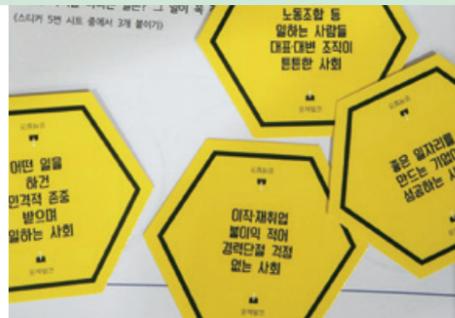
퇴근후렛츠 플러스

11월

창립 10주년 기념 콘퍼런스  
'2016 시민희망지수' 발표

12월

2016 후원회원의 밤  
'희망을 더하다, 더불어 희망하다'



“좋은 일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주민참여로 지자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니어와 청년이 만났습니다.”



“직장인 사춘기, 당신은 어떤가요?”



“한국사회의 희망은 몇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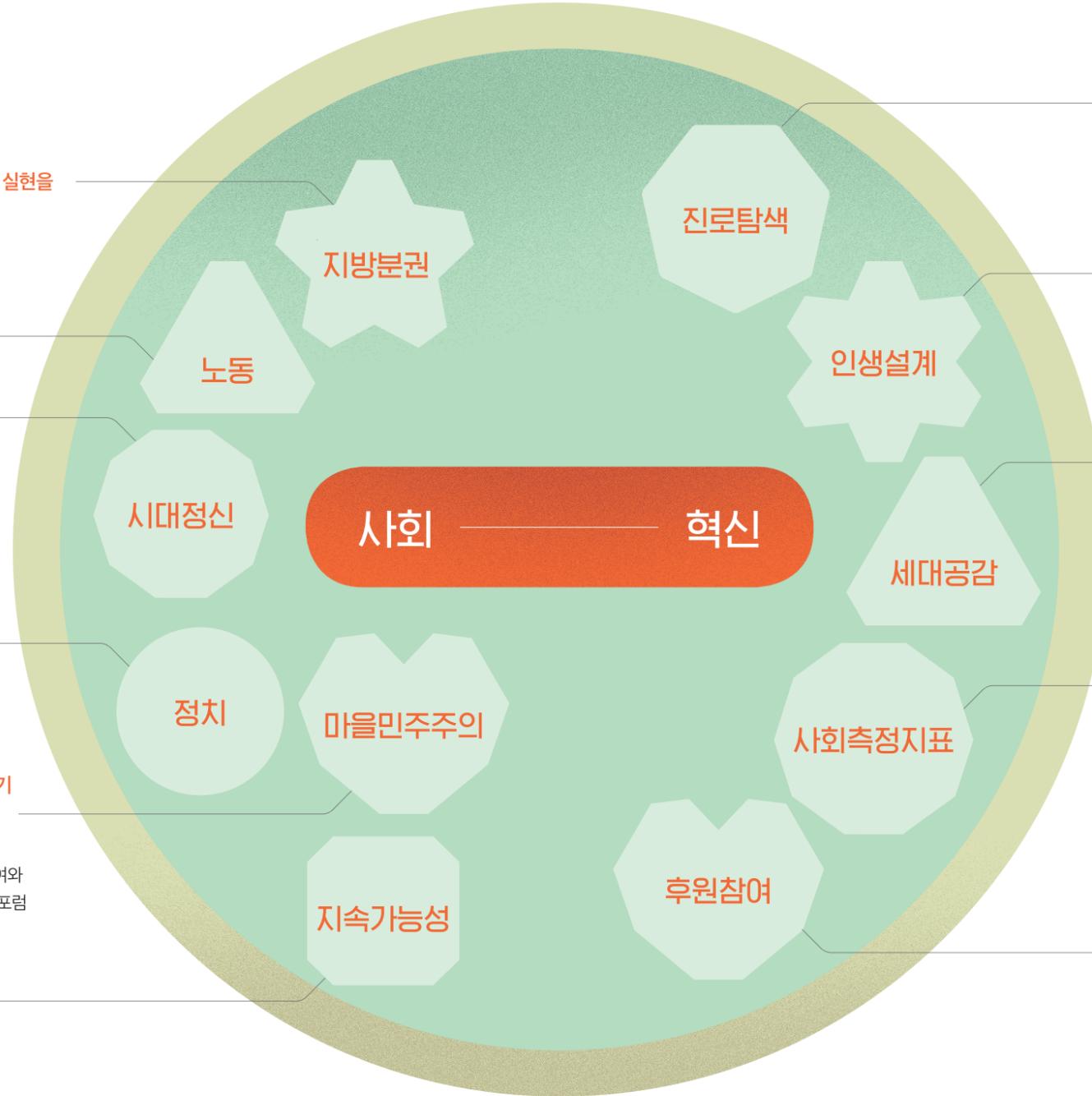


“함께 손 잡고 모이면 희망은 더 커집니다.”

# 희망의 흔적

우리의 일상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의제를 환기시키고, 시민을 직접 만나 사회적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망 시민 22,376명**  
(2016년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참여자 수)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우리 사회의 좋은 일 기준을 찾는 프로젝트

**18,852명**  
(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숍 등 참여자 수)

### 고용안녕프로젝트 : 사다리포럼

우리 사회 막다른 일자리에 관한 해법을 찾는 사회적 대화 포럼

**68명**

### 정치잇수다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프로젝트

**50명**  
(토론회, 워크숍 등 참여자 수)

### 달팽이공부방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거시적 담론부터 구체적 현장까지 정책대안을 나누는 오픈강좌

**50명**

###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 쓸모있는 걱정

지속가능 관점에서 시민의 일상과 걱정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는 프로젝트

**15명**

###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118명**  
(국회의원 여야 후보 서명)

### 시대정신을 묻는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한국사회 오피니언리더 및 분야별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분석한 연구

**11명**  
(인터뷰 참여자 수)

###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 포럼

한국과 일본의 혁신지자체장이 주민참여와 자치발전방향을 모색한 포럼

**200명**

### 청소년 창작지원 '내-일상상프로젝트'

지역사회 및 지역자원 탐색을 기초로 하는 청소년 주도의 '일' 기획 및 실행 프로젝트

**884명**  
(전주·완주 순창지역 등 청소년 참여자 수)

### 퇴근후렛츠 플러스

'일과 삶의 조화를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직장인 인생설계 프로그램

**30명**

### 모금전문가학교

한국 최초, 유일의 이론과 현장 방문을 결합한 펀드레이저 양성 프로그램

**80명**

###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시니어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실행해보는 프로젝트

**148명**  
(프로젝트 참여 청년·시니어, 결선대회 관객 등)

### 시민희망지수

창립 10주년을 맞아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진행된 시민희망인식 조사 연구

**1,030명**  
(시민 설문조사)  
(개인 희망인식 6.26, 사회 희망인식 4.37)

### 2016 후원회원의 밤

희망제작소의 활동을 공유하고, 따뜻한 격려를 나누는 후원회원프로그램

**70명**

### 강산애

다양한 분야의 소셜디자이너들이 산에 오르며 희망을 노래하는 후원회원 산행 프로그램

**700명**  
(총 24회, 평균 30명 참여)

### 감사의 식탁

연구원이 직접 차린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후원회원 프로그램

**70명**(총 3회)

★ 10<sup>th</sup> Hope Time line

10주년 기념 홈페이지 제작

★ 희망이슈

총 20회 발간

★ 희망이슈365

희망이슈 합본호

★ 희망리포트

총 7회 발간

★ 뉴스레터

총 21회 발간

★ SNS채널

블로그 84만뷰  
페이스북 좋아요 9,906명  
트위터 팔로워 10,500명

★ 언론보도

총 199건

# 희망의 발자국

우리 삶의 자양분인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현장연구를 통해 담론을 만들고, 해외교류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는 데 힘썼습니다.

## 전국 18개 지역

(동일 지역 내 다른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지역 중복을 포함한 수치)

서울시 성동구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운용모델 공동연구

서울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시스템 운영매뉴얼 연구

서울시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은평구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충청북도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교육

충청북도 영동군  
충북 영동군 법화권역 지역역량강화사업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주민참여예산교육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참여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학교

경기도 시흥시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4차 보좌진 아카데미

경기도 화성시·수원시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3차 보좌진 아카데미

경기도 양평군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5차 정기포럼

충청남도 논산시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3차 정기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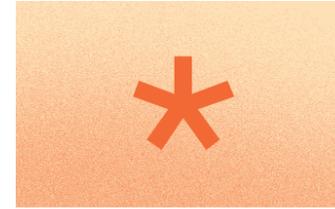
전라북도 전주시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1차 정기포럼

광주광역시 남구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2차 정기포럼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7차 정기포럼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 서구 참여소울 (주민토론회)

광주광역시



서울시 성동구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운용모델 공동연구

서울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운용모델을 공동연구했습니다.

50명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참여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의 과거와 현재를 정리하고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44명



서울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시스템 운영매뉴얼 연구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맞춰 협치기구 설치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70여 명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기초,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151명 (총 9회)



경기도 화성시·수원시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3차 보좌진 아카데미

지방정부 정책보좌관과 비서실장이 모여 지방재정개편방안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9명



서울시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은평구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유희공간, 관리소장, 동대표, 작은도서관을 주제로 아파트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75명



경기도 시흥시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4차 보좌진 아카데미

지방정부 정책보좌관과 비서실장이 모여 지역의 청년정책을 논의했습니다.

33명



경기도 양평군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5차 정기포럼

15명의 지자체장을 비롯한 지자체 실무자가 모여 지방자치에 위한 인사조직 혁신방향을 논의했습니다.

130여 명



**충청북도**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교육**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 이해, 의제  
도출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50**명



**충청북도 영동군**  
**충북 영동군 범화권역  
지역역량강화사업**  
농촌지역 주민의 자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실행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305**명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주민참여예산 교육**  
제천시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00**명



**충청남도 논산시**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3차 정기포럼**  
29개 지자체 실무자와 21명의 지자체장  
등이 모여 자치 혁신을 위해 민선6기  
하반기를 구상하고 핵심전략을  
논의했습니다.

**130**여명



**광주광역시 남구**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2차 정기포럼**  
29개 지자체 실무자와 25명의 지자체장  
등이 모여 청년과 지역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160**여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7차 정기포럼**  
25개 지자체 실무자와 19명의  
지자체장 등이 모여 인권의 지역화를  
논의했습니다.

**120**명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 서구 참여소울  
(주민토론회)**  
지속가능한 광주 서구를 만들기 위해  
주민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100**여명



**전라북도 전주시**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1차 정기포럼**  
21명의 지자체장과 실무자 등이 모여  
젠트리피케이션과 지역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40**여명



**미국**  
**목민관클럽 제16차 정기포럼  
해외정책연수**  
미국의 시민참여 정책현장과 지역혁신  
현장을 탐방했습니다.

**24**명



**중국**  
**동아시아 사회혁신연구협의체  
(EASII) 워크숍 베이징포럼**  
사회혁신으로 지역과 사회, 미래를  
디자인하는 관점을 논의했습니다.

**35**명



**북유럽**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목민관클럽 제14차 정기포럼  
해외정책연수**  
북유럽의 청소년 진로·직업교육 현장을  
돌러봤습니다.

**34**명

해외 6개국



**일본**  
**안신숙의 일본통신**  
안신숙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일본,  
일본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기획연재로  
전해드렸습니다.

**65**명  
(인터뷰 통해 만난 사람들, 2016년 총 10회 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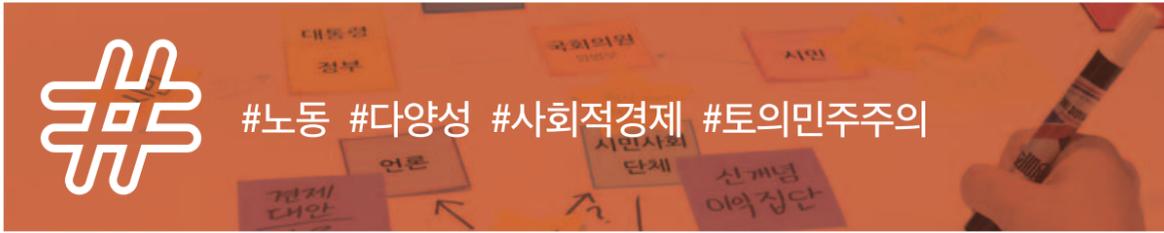


**일본**  
**동아시아 시민사회 자원봉사  
국제포럼**  
시민에 의한 소셜이노베이션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150**여명

# 해시태그로 보는 2016년 활동

한국사회 여러 영역에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16년 광장의 촛불에서 그 힘과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2016년 한 해 동안 시민과 함께 지역이라는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일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시민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시민의 일상과 삶을 변화시킬 의제를 발굴하고 연구와 실행사업을 통해 실질적 대안과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 고용안녕프로젝트 : 사다리포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막다른 일자리를 전문가와 시민이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연구입니다. 2016년에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제작하여 아파트 단지에 배포하였고, 서울시의 관련 조례 개정을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운용모델 공동연구

서울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이 조성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운용모델을 연구하고 제시했습니다.

### 정치잇수다

토의민주주의 확산을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시민과 함께 좋은 정치를 상상하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크고 작은 경험을 공유하며, 투표 이외의 정치참여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시즌 2

'좋은 일'의 기준과 그 확산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15년에 이어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보다 상세한 좋은 일의 기준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학부모, 취업준비생, 비영리종사자, 은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도 몰랐던 나에게 좋은 일'의 기준을 찾아보았습니다.



## 해답은 주민과 현장에 있다

현장 중심의 지역연구를 통해 지역 고유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주민참여와 자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교육 활동을 통해 지역 단위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자 했습니다.

### 광주 서구 참여소울(주민토론회)

광주 서구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지역에서 진행된 정책과 앞으로 진행될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 주민참여예산 교육 및 연구

주민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인식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에는 충청북도, 시흥, 제천 등에서 지역 맞춤형 교육과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 포럼

'일본국제교류기금(The Japan Foundation)'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 포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모여 주민참여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의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 충북 영동군 범화권역 지역역량강화사업

2013년부터 진행한 농촌 종합정비사업 중 소프트웨어(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교육·홍보마케팅·정보화 등의 컨설팅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도시에서 사라져가는 공동체문화를 복원하고자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2016년에는 아파트 공공이슈에 관해 입주민의 인식과 관점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주민주도의 단지 내 유휴공간 활용방안 수립,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공공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 다(多)세대사회를 고민하다

고령화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세대 간 공감과 통합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생애설계와 진로 지원에 힘썼습니다.

###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시니어의 사회공헌아이디어를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실행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2016년 세 번째로 열린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는 70여 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6개 아이디어가 최종 선정되어 10주간 실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페인, 창작워크숍, 연극과 뮤지컬, 음식, 수다플랫폼이라는 다채로운 아이디어로 풍요롭게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 청소년 창작지원 '내-일상상프로젝트'

전주와 완주 등 전북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입니다. 1단계 상상학교와 2단계 재능탐색워크숍,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내일(tomorrow)의 내 일(my job)을 상상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퇴근후렛츠 플러스

'더 나은 삶과 사회의 모델은 없을까' 혹은 '일과 삶의 조화를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직장인 인생설계 프로그램입니다. 30여 명의 수강생이 강의, 워크숍, 조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의미있는 삶을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았습니다.



## 성장에서 분배와 평등으로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회·경제·환경 등의 다양한 영역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 쓸모있는 걱정

지속가능 관점에서 시민의 일상과 걱정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지 대안을 찾아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첫 프로그램에서는 경주 지진 이후 주목받고 있는 원자력발전을 다뤘습니다. 영화 '판도라' 자문을 맡은 김익중 교수의 '시민이 알아야 할 원전의 모든 이야기' 강연과 관련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 지속가능발전시스템 운영매뉴얼 연구 (거버넌스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통의 문제(안전, 환경, 경제 등)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바라보고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해 풀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서울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연구했습니다.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맞춰 협치기구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과정을 설계하고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다

지역과 중앙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목민관클럽 사무국 운영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으로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2016년 목민관클럽은 정기포럼 5회 개최, 정책연수 2회 진행, 보좌진 아카데미 2회 진행, 목민광장 2회 발간 등을 통해 지자체 간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20대 총선 후보에게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제안하고 그 실천을 약속받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3월 14일부터 4월 7일까지 총 118명의 후보가 서명했습니다. 7대 과제 주요 내용은 ①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② 자치입법권 강화 ③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설치 ⑦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입니다.



## 그리고 다시, 희망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점점 더 정체돼가는 한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혁신적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며 다시 '희망'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 2016 시민희망지수

시민의 희망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발표했습니다. 15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희망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희망인식은 10점 만점에 6.26점, 사회희망인식은 4.3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 시민은 개인적으로는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지만, 사회에 대해서는 절망적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희망인식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40대로, 이들이 희망을 충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시대정신을 묻는다

우리 사회 오피니언리더 11인을 만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한 후, 5년 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묻고 그 내용을 빅데이터 방식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 지향해야 할 미래 가치로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을 제시했습니다.

### 희망이슈 · 희망리포트 발간

희망제작소의 연구성과를 한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를 통해 싱크앤두탱크의 정체성을 더 강화시키고자 했습니다. (2016년 한 해 희망리포트 총 7회, 희망이슈 총 20회 발간)

### 아름다운재단 사업범주 '변화의 시나리오' 연구용역

한국사회의 교육·환경·건강·주거·노동·안전·문화·사회참여 영역에 대한 현실을 진단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제를 찾아보았습니다.



# 살림살이 - 2016 재정보고



시민과 함께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싱크앤두탱크의 재도약을 목표로 열심히 달린 2016년!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촛불과 함께, 2016년을 열심히 보낸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토닥임을 보냅니다.

2016년, 희망제작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의제를 연구하고 시민과 함께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싱크앤두탱크의 재도약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또한 의제 중심으로 팀제를 개편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했습니다. 공동체교육프로그램, 팀 워크숍, 연구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연구의 질적향상 제고와 내실을 다지는 데도 힘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2016년은 총수입 25억7천5백만 원, 총지출 25억6백만 원으로 수지 차 6천9백만 원의 흑자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연구용역 등의 사업수입은 39%, 지출은 30%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지출은 8%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적은 인원이 적극적으로 연구용역 및 실행사업을 집행한

결과입니다. 또한 회비수입 등으로 분류됐던 기관 기부금 일부를 연구용역사업비로 대체하면서 늘어난 효과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시민참여를 끌어내고자 노력했음에도 후원회원과 회비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고민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시민의 지갑이 쉽게 열리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더 많은 희망이 자랄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2017년에는 시민의 상상과 참여로 불평등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일굴 수 있도록, 더욱 더 대안적인 연구를 하는데 역량을 모으려 합니다. 그 길에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희망제작소를 후원하고 응원해주신 시민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최근 5년간 수지계산서

(단위 : 천 원)

항 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 입	3,739,094	4,098,362	3,059,889	2,712,479	2,575,440
지 출	3,335,713	3,926,192	3,067,989	2,327,110	2,506,148
수지차	403,381	172,170	-8,100	385,369	69,292

## 수입내역

(단위 : 천 원)

	수입합계	회비수입 등	연구용역 등	기타수입
2012년	3,739,093	1,646,918	2,076,649	15,526
2013년	4,098,363	1,782,354	2,302,811	13,198
2014년	3,059,889	1,189,359	1,860,609	9,921
2015년	2,712,479	1,487,835	1,206,894	17,750
2016년	2,575,440	885,429(회비단독)	1,675,455	14,556

## 지출내역

(단위 : 천 원)

	지출합계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기 타
2012년	3,335,711	1,400,532	1,466,914	340,682	127,583
2013년	3,926,193	1,733,328	1,884,552	295,766	12,547
2014년	3,067,990	1,332,869	1,470,535	251,867	12,719
2015년	2,327,110	910,125	1,171,672	228,795	16,518
2016년	2,506,148	1,185,752	1,074,782	231,137	14,477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길을 걸으며  
힘들 때마다 아낌없이 손 내밀어주는 당신이 있기에  
희망제작소가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은 희망의 좋은 벗입니다.



**2016**년

정기후원

**5,968**명

수시 후원

**75**명

물품후원

- \* 연구원들의 한 끼를 든든하게 채워준  
한정식 도시락 정미영 후원회원
- \* 나른한 오후에 불끈! 힘을 준  
갓 볶은 신선한 커피콩 윤나라 후원회원
- \* 이 땅을 지키는 농민의 마음을 빛어  
손수 만든 우리밀 초코쿠키  
이정실 후원회원
- \* 알록달록 달콤한 맛과 향을 담은  
선데이잼 이세은 후원회원
- \* 5개 팔리면 1개가 기부되는 착하고  
건강한 씨리얼바 정지훈 후원회원
- \* 기분 좋게 사과하는 팁과 함께 배달된  
아삭아삭 사과 박은미 후원회원
- \* 창녕에서 직접 수확한 친환경 감  
박경호 고문님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이야기 \_\_\_\_\_ 참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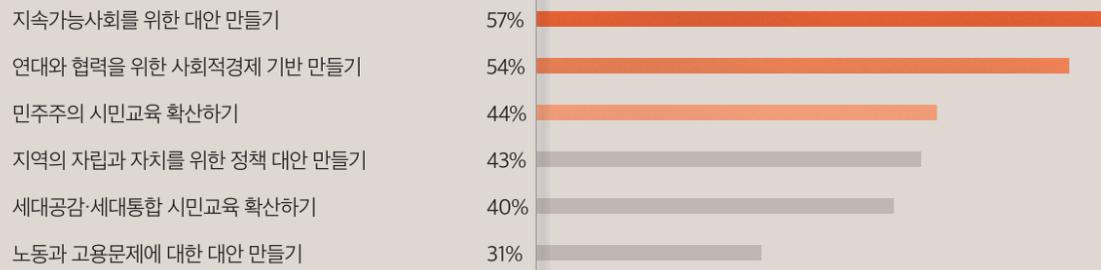
2016년에도 많은 후원회원님이 정기후원과 수시후원, 물품후원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따뜻한 정성은 때로는 어두운 길을 밝히는 빛이, 두려움 없이 한 걸음 내딛으라는 든든한 격려가,  
힘든 상황을 헤쳐 나갈 용기가 되어 희망제작소를 지켜주었습니다.

## 후원회원님께 물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희망제작소를 어떻게 만나고 공감했는지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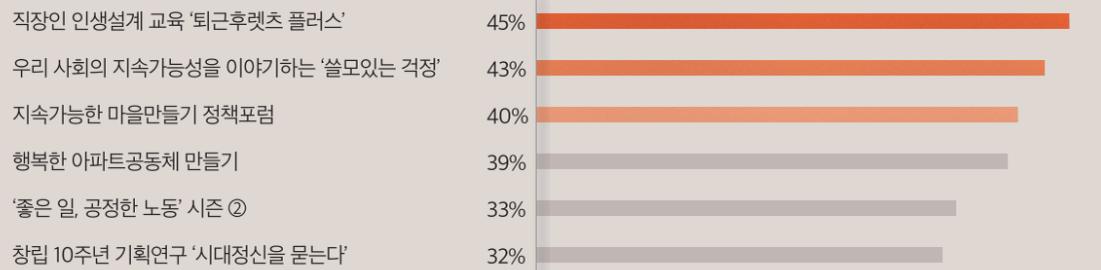
###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 가장 관심 있는 사회혁신 영역은?

(중복응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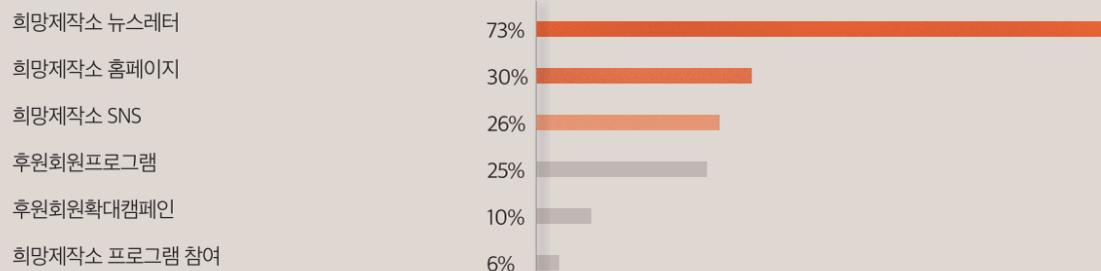
### 후원회원이 가장 관심 있는 2016년 희망제작소 활동은?

(중복응답포함)



### 2016년 희망제작소와 후원회원의 연결고리는?

(중복응답포함)



### 2016년 희망제작소 활동에서 가장 뿌듯했던 점은?

- 그동안 해왔던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모습이 뿌듯합니다
-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변화에 주목하는 부분이요
-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접목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 사다리포럼이나 시민희망지수처럼 새롭고, 시의적절하게 우리 사회의 희망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점이요
- 다양한 영역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요
- 시민, 전문가와 함께 한국사회의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를 고민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 시니어의 사회공헌 교육이나 목민관클럽과 같이 사회혁신에 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후원회원에 대한 관심과 후원회원과의 소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칭찬합니다

### 2016년 희망제작소 활동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 사회혁신의 인큐베이터 역할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합니다
- 폭넓은 사회의제를 다루다보니 한 분야에 좀 더 깊이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워요
-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희망제작소를 기대합니다!
- 희망제작소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 대부분 프로그램이 저녁·주말에 진행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아이와 가정일이 있어 이 시간대에는 참가가 어렵거든요
- 지역회원들과 만남이 적어서 아쉽습니다. 지역에서도 희망제작소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 희망제작소의 메시지가 조금 더 대중적으로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 회원 수를 배가시키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희망제작소에게 바란다  
“이것만은 해다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민주주의에 대해 색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사회 1%가 아닌 99%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고 말해주는 역할을 해주세요.

청소년을 위해 민주주의와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지역민이 소외받지 않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세요

시민을 대변하는 대안을 만들어주세요

어두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희망과 실천의 방법을 보여주세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들 안에서 쓸모있는 것을 재발견하고 담론을 형성해주세요

2017년 많은 변화가 있을 한국 정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지역 구석구석으로도 활동 영역을 넓혀주세요



촛불혁명에서 나타난 시민의 열망을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으로 만들어주세요

성숙한 시민사회,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주세요



희망제작소를 응원한다  
“파이팅! 희망제작소”



그동안의 많은 애씀이 더욱 빛을 발하는 한 해 되길  
- 반기민

남이 가는 길이 아닌 스스로 징검다리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 이동현

꾸준히! 담담하게! 건강하게! 인간답게 사는 사회 건설의 밑돌이여!  
- 최갑선

멀리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늘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 정지영

답답한 이 시대의 희망!  
- 김효근

노는 듯이 일하세요  
- 이윤정

사랑해요  
- 나은중

희망제작소는 마음의 물음을 함께하는 곳입니다. 올 한해도 함께할게요!  
- 박연미

어느 쪽으로도 편향되지 않고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며 더욱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 주다영

출구 없는 동굴 속 같은 답답한 현실에 지칠 때 희망제작소는 깜박이는 등대 같은 존재입니다  
- 오정란



희망을 넘어 '함께'의 대안을 찾아갈 희망제작소를 믿습니다  
- 나인호

우리 사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 더욱 더 밝게 타올라 온 세상을 밝혀주세요  
- 박점배

1004클럽

###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기부천사, '1004클럽'

1004클럽은 희망제작소의 1천만 원 기부자 커뮤니티입니다. 1004클럽 후원회원은 희망제작소와 함께 우리 사회에 희망의 흩씨를 퍼뜨리며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소셜디자이너입니다.

####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004클럽은 정미영 후원회원님(1번 천사)께서 은퇴 이후 여행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모은 1천만 원을 후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적지 않은 금액을 망설임 없이 후원한 정미영 후원회원님의 마음은 뜨거운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그 뜻을 의미있는 활동으로 이어가기 위해 기부천사 커뮤니티 1004클럽을 만들었습니다.

#### 이렇게 후원합니다

1004클럽 후원회원이 되면 각자 후원방법을 선택해서 일시 또는 CMS,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3년 안에 1천만 원을 기부합니다.



#### 이렇게 운영합니다

**1004클럽 기부자의 벽**  
1번부터 1004번까지 원하는 희망번호를 선택하면 기부스토리와 함께 희망제작소 명예의 전당인 '1004클럽 기부자의 벽'에 전시되며, 희망제작소를 방문하는 수많은 방문객에게 소개됩니다.

**고마움을 담은 특별한 선물**  
1004클럽 후원회원이 되면 회원증과 선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후원금을 완납하면 특별히 제작한 감사패를 직접 전해 드립니다.

**정기모임**  
격월로 열리는 1004클럽 정기모임에 초대합니다. 조찬 세미나, 강연, 포럼, 해외탐방, 봉사활동 등 사회혁신 관련 모임에 참여해 풍성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 1004기금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사회혁신 의제 연구와 실행**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꿈을 펼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 청년이 제대로 성장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활동에 사용합니다. 매년 연말, 사업보고회를 통해 희망제작소가 진행한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기부스토리를 모은 단행본 발간**  
후원금을 완납한 1004클럽 후원회원의 기부스토리를 모아 책으로 만듭니다. 후원을 결심한 사연, 자신만의 모금방법, 사회를 보는 따뜻한 시선은 많은 사람에게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키고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전파하는 흩씨가 될 것입니다.

**희망제작소 사업 멘토 참여**  
1004클럽 후원회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산과 네트워크를 희망제작소의 사회혁신 사업과 연결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멘토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사옥 마련**  
1004기금을 마중물 삼아 향후 희망제작소 자체 사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재정을 안정시켜, 더 많은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할 것입니다.



### 희망은 함께 할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전주 1004클럽 이야기

전주에는 희망제작소와 인연을 맺은 10명의 1004가 있습니다. 10명의 1004클럽 후원회원에게는 '나눔의 실천'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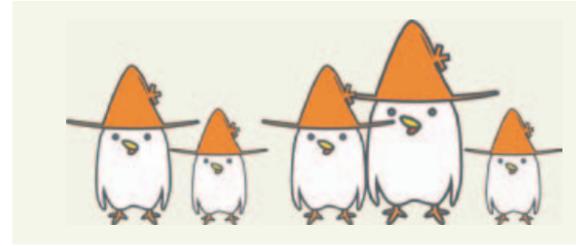
그중 하나는 함께 해서 더욱 힘이 나는 '부부' 1004가 많다는 것입니다. 김주형·안혜숙 님, 정창남·정희옥 님, 그리고 2016년 함께 한 김종훈·정혜명 님 부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사회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치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010년 전주시 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주형(현 전북의사회 회장)·안혜숙(안혜숙산부인과 의원 원장) 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조수영(조수영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님이 후원을 시작했고, 정창남·정희옥 님이 같은 동네에 사는 김종훈(백제약국 약사)·정혜명(온정약국 약사) 님에게 후원을 권유해서 함께 1004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전주 1004와 우리 사회를 치유하는 대안을 만드는 희망제작소. 왠지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전주 1004는 '함께'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제작소 1004클럽 후원을 계기로 지역에서 자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사회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2016년 봄에는 정희옥 님을 비롯한 전주 후원회원이 하나 둘 모여 '전주 강산애(정기산행프로그램)'를 시작했습니다.

지역은 우리 사회의 중심이고 뿌리입니다.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은 지역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전주 1004클럽이 있습니다.



### 여기가 아니라도 여전히 희망!

전직 연구원이 모인 1004클럽 '희망엔젤스'

5천여 명이 넘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중에는 희망제작소 연구원도 있습니다. 사업을 기획하고 후원을 요청하는 연구원이자 후원자인 셈입니다. 후원자였던 연구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희망제작소를 떠난다고 해도 후원을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영리단체에서 후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2016년 희망제작소 연구원에서 '자유 연구자'로 자리를 옮긴 '우군'의 제안으로 퇴사한 연구원 몇 명이 모여 1004클럽 후원회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희망엔젤스'는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1004지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많지 않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모아 전해주는 그 마음이 더욱 뿌듯한 고마움으로 새겨지고 있습니다.

희망엔젤스 후원회원님! 한국사회에 희망을 만드는 길에서 우리는 늘 함께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 같은 곳을 바라보는 든든한 친구로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호프메이커스클럽(HMC)

## 희망을 만드는 오피니언리더 모임, '호프메이커스클럽' (HMC)

희망제작소 HMC(Hope Makers' Club)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고 디자인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모임입니다.

2009년 4월 세상의 변화를 꿈꾸며 희망제작소를 응원하는 이들의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HMC 후원회원은 현장탐방, 조찬강연과 포럼, 문화행사,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고, 매달 10만 원 이상 정기후원하는 등 희망제작소와 함께 걷는 든든한 지지자입니다.



2016년 진행된 HMC 후원회원 프로그램

주제	장소
2월 2016년 사업보고회	인사동 회의골
7월 해외탐방 <아드리아해의 빛나는 햇살이 품은 오랜 역사와 문화탐방>	동유럽 발칸
11월 초대강연<시대정신을 말한다> / 하승수	달개비
12월 2016 후원회원의 밤	신촌 르호봇



## 물음이 필요 없는 후원

이윤정 HMC 후원회원

“싱크탱크는 후원한다고 해서 가시적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하면서도 오래 망설이지는 않았어요. 희망제작소에서 좋은 정책이 태어나고 실행된다면 우리 사회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단비가 폭넓게 내릴 거라고 생각했지요.”

이윤정 후원회원은 궁금했다고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이 사회에 과연 희망이 있는지 말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천 개의 바람에 묻고, 만나는 사람마다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 중에 희망제작소가 있었습니다. ‘더 물을 필요가 없는 후원’은 2014년에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고 어느 날 잘 모르는 단체채팅방에 초대되었어요. ‘강산애’였지요. 많은 사람이 모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쉴 새 없이 이야기 나누는 걸 보면서 희망제작소의 후원회원들이 참 대단하구나 생각했지요.”

이윤정 후원회원은 ‘강산애’ 정기산행, 트래킹, 번개모임에 참가할 때마다 두 아이 시우, 지우와 함께 합니다. 아이들은 유쾌한 어른들과 호호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회를 알아갑니다. 이윤정 후원회원에게 ‘강산애’는 유머를 잃지 않으면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만드는 놀이터이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마을 학교 같은 공동체입니다.

늘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이윤정 후원회원이지만, 지난해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바닥부터 흔들린 이 사회의 시스템을 과연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서로 보완하는 정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윤정 후원회원님, 2017년에도 희망제작소와 함께 더 즐겁고 힘차게 고민을 나누면서 사회를 바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희망합니다

방정일 HMC 후원회원

2015년 1월, 방정일 후원회원은 희망제작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방문신청을 했고, 바로 HMC 후원회원이 되었습니다. 정기후원뿐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 기획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청소년사회혁신프로젝트 ‘00실험실’에 사업후원금을 지원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가족과 함께 희망제작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부분은 오롯이 개인의 성취라기보다는 사회적 시스템과 많은 사람의 희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부채를 갚는 한 가지 방법으로 희망제작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 기회를 누리고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직장을 다니며 사랑하는 가족과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방정일 후원회원.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혜택을 다시 사회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희망제작소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민하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희망제작소의 노력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사회 변화는 상당한 끈기와 노력 그리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희망제작소가 서두르지 않고 그 어려운 길을 뚝뚝뚝 걸어 나가길 바라며 후원원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정일 후원회원은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희망합니다. ‘힘’이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독려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마음의 빛을 갖기 위해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을 이어가려 합니다.

강산애

### 강과 산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후원회원 모임 '강산애'

강산애는, 강과 산을 사랑하는 후원회원 160여 명이 모여 활발히 활동하는 희망제작소의 가장 오래된 후원회원 모임입니다.

2016년 강산애는 1월 마니산에서 새해 정기를 받으며 첫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3월에 시산제를 열고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유명산 등 서울과 근교의 산은 물론 진안 마이산, 홍천 팔봉산 등을 평균 30여 명의 회원이 함께 오르며 총 12회의 정기산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등을 찾은 번개 산행에도 정기산행 못지않은 많은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매월 세 번째 일요일에는 서울 곳곳의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근교의 숲과 강을 따라 걷는 트래킹 모임을 12회 진행했습니다.

강산애의 또다른 특별함은 자연을 사랑하는 만큼 인간과 사회에 관심을 기울이며 끊임없이 토론하고 성찰한다는 것입니다. 강산애 회원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희망제작소 소셜디자이너로, 여러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와 손길, 연대가 필요한 현장으로 서슴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광장에도 늘 촛불을 든 희망제작소 강산애 회원이 있습니다.

2017년 강산애는 산행에 이어 문화예술모임 루덴스클럽, 철학아카데미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을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강산애는 희망제작소가 유쾌한 시민의 놀이터가 되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산애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식탁

### 밥 한 술에 감동 있는 이야기를 더한 감사의 레시피 후원회원프로그램 '감사의 식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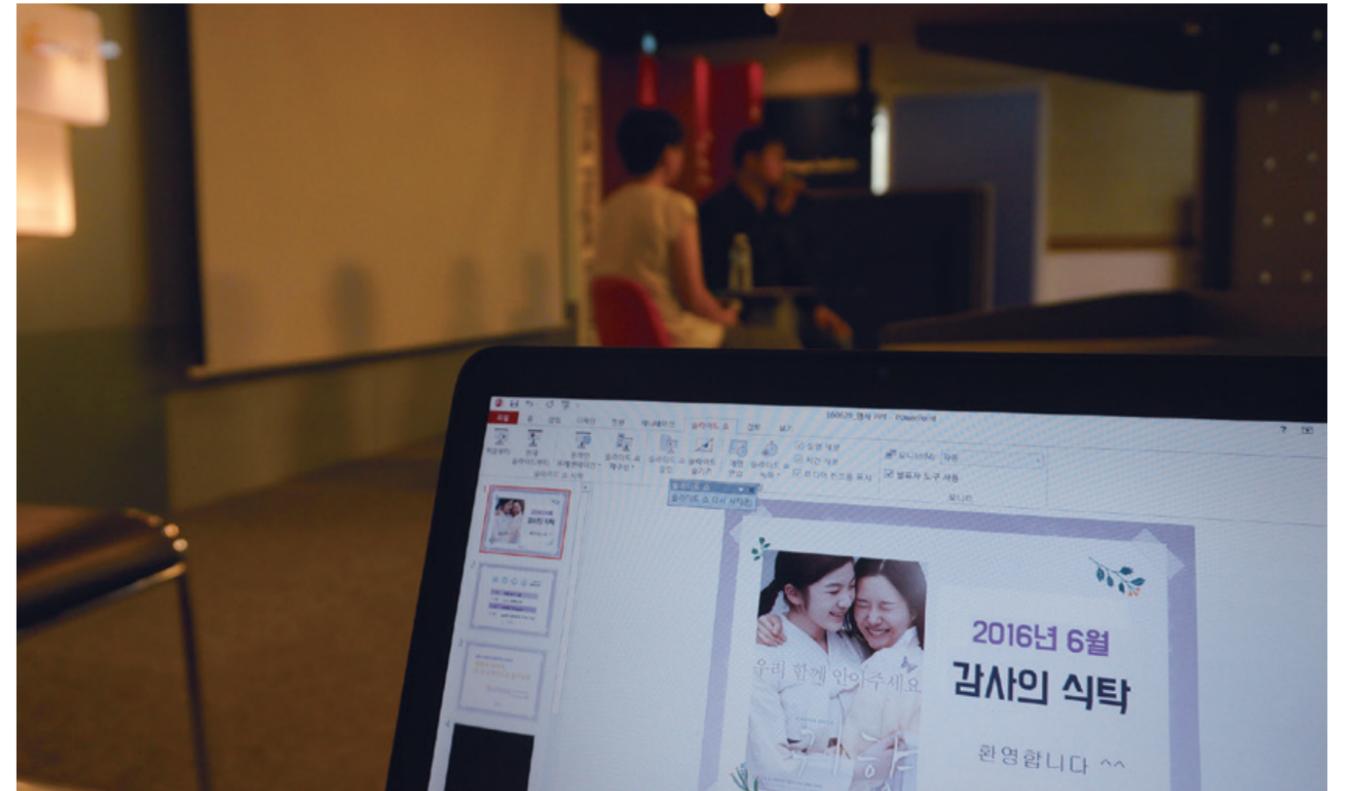
감사의 식탁은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을 초대해서 연구원들이 지은 따뜻한 밥을 대접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후원회원프로그램입니다.

**3월 '희망제작소의 소박한 열 번째 생일파티'**  
긴 겨울이 지나고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은 희망제작소의 생일(3월 27일)이 있는 달입니다. 2016년 첫 감사의 식탁은 후원회원과 함께 축하를 나누는 소박한 생일파티로 준비했습니다. 희망제작소뿐만 아니라 참가하는 후원회원님도 축하받고 싶은 이야기 한 가지씩 들고 오셨습니다. 릴레이로 소개하고 서로 축하를 주고 받은 후, 희망제작소 연구원의 작은 축하공연으로 행사를 훈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6월 '영화 <귀향>이 들려주는 이야기'**  
6월에는 이즈음에 기억하고 나누어야 할 이야기를 식탁에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위안부가 된 소녀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픈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영화 '귀향'을 연출한 조정래 감독을 특별한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14년 동안 힘들게 영화를 만든 과정, 함께 한 사람들의 이야기, 정

부의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귀향을 감명 깊게 본 초등학생 아들 손을 잡고 오신 후원회원, 제자들과 함께 오신 초등학교 교사 후원회원 등 참석한 모든 분이 이 한 마디에 공감했습니다. "힘들고 아파도, 우리 함께 기억해요."

**11월 '수고했어요! 올해도'**  
2016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던 날, 다사다난과 우여곡절이 굽이굽이 펼쳐진 한 해를 사느라 수고한 우리 모두를 위한 마지막 감사의 식탁을 차렸습니다. 오늘날은 한 개의 걱정이라도 줄여보라며 쓰레기통에 걱정을 던져 버리고 잠시지만 개운하게 웃었습니다. 걱정버리기 이벤트에 이어 희망제작소의 여러 활동에 관해 연구원들이 직접 소개하면서 2016년 마지막 감사의 식탁을 마칩니다.



2016 후원회원의 밤

### ‘희망을 더블하다, 더블어 희망하다’

‘오늘도 온 세상은 희망을 노래해. 더더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희망은 떠나지 않고 지금 여기 머물러 있죠. 절대 잊지 마요. 당신도 누군가의 희망이란 걸. 우리 함께 해요, 새로운 시작 같이 해요’

- 희망제작소 10주년 노래 ‘희망송’

2016 후원회원의 밤이 다가올 즈음에는 촛불집회의 열기가 한참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해가 저무는 12월, 마지막 잎새 같은 달력을 남겨두고 있는 때, 고단한 이들의 몸과 마음이 ‘희망’이라는 단어로 따뜻하게 데워지기를,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회원의 밤을 준비했습니다.

행사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후원회원님을 향해 연구원들이 두 팔을 벌리며 불쑥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멍칠했던 분도 이내 환한 웃음으로 ‘반갑습니다’라고 화답하며 포옹을 했습니다. 포옹은 희망제작소 연구원과 후원회원님 사이를 넘어 후원회원과 후원회원 사이로 번졌습니다. 처음 만난 분들은 어색함을 허무는 즐거운 인사로, 오랜만에 만난 분들은 유쾌한 인사로, 눈이 마주치는 분마다 포옹을 하느라 크고 작은 웃음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후원회원님이 던진 여러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하는 ‘희망이 답하다’에 이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후원하신 34명의 후원회원님께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감사패를 받고 소감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힘이 빠질 때마다, 게을러질 때마다, 헛발질에 넘어질 때마다 이 순간을 떠올리며 다시 불끈 힘을 내겠습니다.

희망제작소 노래를 만들면 재미있지 않을까? 연구원의 소중한 희망을 담은 노랫말에 김철연(싱어송라이터)님이 경쾌한 멜로디를 입혀서 ‘희망송’을 만들었습니다. 김철연님의 축하공연 ‘바람의 노래’ 기타연주가 끝나고, 지난 여름 띄약벌 아래 평창동 곳곳을 돌며 찍었던 땀범벅 뮤직비디오를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사 마지막에 희망송 본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여섯 명의 연구원이 김철연님의 기타연주에 맞춰 먼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노래 중간, 객석에서 준비하고 있던 연구원 모두가 환호성과 함께 무대에 올라 합창을 했습니다. 틈날 때마다 화음을 맞춰보느라 흥얼흥얼 노랫소리가 사무실에 바이러스처럼 퍼지던 시간을 뒤로하고, 후원회원님 앞에서 다 같이 입을 맞춰 노래를 부른 순간은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희망송 합창을 마지막으로 2016 후원회원의 밤이 막을 내렸습니다.

희망제작소가 걸어온 지난 10년도 쉽지 않았지만, 2016년은 모든 국민에게 더 없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서로를 안아주며 위로하고 힘내라고,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했다고 격려했던 따뜻한 시간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후원회원님, 희망제작소 10년을 함께 하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잊지 않고 더더도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희망을 향해 뚝뚝뚝 나아가겠습니다.





민주주의 주민회의 좋은일  
 지속가능발전 미래의 일  
 기본소득 **다양성** 불평등  
 불평등 **직접민주주의**  
 개헌 북한대기근 4차산업  
 협오와 증오  
 시민

불평등 구의역 스크린도어사고  
 시민희망권 각자의 깃발 알파고  
 참여세대 안전 시민 가족의탄생  
 일과 삶의 통합 **세대통합**  
 주민참여 **시민** 부동산버블  
 세대통합 촛불  
 좋은일

시민  
 역사왜곡 탄핵  
 진실 국정농단 **광장**  
 디스플레이션 **촛불**  
 국정교과서  
 시민권력  
 비선실세  
 사회통합  
 탄핵 국정농단  
 상식의 정상화  
 THAAD 희망제작소 10주년

## 잊을 수 없다

연구원이 뽑은 2016 키워드

패권  
 알파고  
 Post Truth  
 희망지수 **인공지능**  
**민주주의** 비선실세

지방자치  
 희망제작소 10주년  
 강대국 간 갈등심화  
 인공지능 **희망지수**  
 위험이 곧 기회다  
 참여세대 민주주의  
 지속가능발전  
 일과 삶의 통합  
 금리인상  
 페미니즘 안전  
 지방자치 시민참여 방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6년 한국사회, 희망제작소 연구원이 뽑은 한국사회 2016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연구원의 머리와 마음을 뜨겁게 달군 2016년 키워드는 단연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국면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흔들며 깨웠습니다. 거리에 선 시민이 연일 평화집회를 열듯이, 연구원들도 '민주주의'를 열망했습니다.

**\***  
 촛불  
 직접 민주주의  
 시민

**\***  
 가족의 탄생  
 고양이  
 역사왜곡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페미니즘

연구원들이 뽑은 키워드  
 중에는 우리네 생활과 연결된  
 시선을 엿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이면, 착취  
 구조로 인해 소외되는  
 노동자의 현실 등 거대  
 담론으로 놓칠 수 있는  
 일상의 맥락을 짚은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세월호에서 시작해 대통령 탄핵까지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 변화의 시작에는 항상 시민의 목소리와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다. 2016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깨어났고, 행동했다” - 박다경 후원사업팀 연구원  
 “시민이 권력자의 꿈수에 속지 않고, 성숙한 방식으로 촛불문화제를 이끌어갔다는 점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박정호 경영지원실 연구원  
 “권력의 부패에 맞서 시민이 일어났다” - 박홍석 지속가능발전팀 선임연구원  
 “역사상 두 번째 탄핵 시도. 국민에게서 시작된 탄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오승화 웹팀 연구원  
 “우리가 놓치고 있던 혹은 잊고 있던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주체적인 경험을 했다” - 안수정 지역정책팀 연구원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시민의 힘, 촛불의 힘, 광장의 힘으로 바뀌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민주주의의 힘을 새삼 깨달았다” - 최은영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가족에서, 개인,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의 탄생. 변화하는 구성 속에서 기대되는 혹은 달라지는 나의 역할이 키워드였다” - 안영삼 웹팀 팀장  
 “1인 가구(만혼·비혼·딩크족)의 증가와 결핍과 관계 맺기에 대한 대리 충족이 엿보인다. 앞으로도 고양이에 대한 애정은 계속되지 않을까” - 이은경 사회의제팀 연구위원  
 “정부가 앞장서서 진행하는 역사왜곡, 국정교과서, 위안부 협상 등. 이를 저지하는 건 역시 시민의 힘이다” - 오지은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 사고였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구조 속에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노동자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 김지현 지역정책팀 팀장  
 “2016년 출판 시장을 점령한 키워드로, 각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페미니즘 없이는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 - 백희원 시민사업팀 연구원

민주주의 주민회의 좋은일  
 지속가능발전 미래의 일  
 기본소득 **다양성** 불평등  
 시민 **직접민주주의**  
 개헌 북한대기근 4차산업  
 협오와 증오  
 시민

불평등 구의역 스크린도어사고  
 시민희망권 지속가능발전  
 참여세대 안전 진실 가족의탄생  
 일과 삶의 통합 **세대통합**  
 주민참여 **시민** 부동산버블  
 세대통합 촛불  
 좋은일

시민  
 역사왜곡  
 진실 국정농단 광장  
 디스플레이션 **촛불**  
 국정교과서  
**시민권력**  
 비선실세  
 사회통합  
 탄핵 금리인상  
 상식의 정상화  
 THAAD 개헌 사회통합

## 점쳐본다

연구원이 뽑은 2017 키워드

패권  
 알파고  
 Post Truth  
 4차산업 인공지능  
**민주주의** 불평등

희망제작소 10주년  
 강대국 간 갈등심화  
 EU **희망지수** 갈등  
 위험이 곧 기회다  
 지속가능발전  
 보호무역  
 미래의 일  
 금리인상  
 상식의 정상화  
 지방자치 **시민참여** 방법

2017년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상상과 참여로 불평등 극복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이 뽑은 2017 키워드에서도 시민의 역할을 찾기 위한 고민이 엿보입니다. 정치·경제·교육·사회 등 전 부문을 아우르는 ‘불평등’과 뒷걸음질 친 민주주의 회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  
 사회 도처에  
 내재된 ‘불평등’을  
 넘어서야

“실패의 위험보다 도전이 가져올 혁신의 가치가 더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 불평등과 불안의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청년이 행복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 이은경 사회의제팀 연구위원  
 “젠더문제를 비롯하여 한국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향방이 달려있다” - 이원혜 후원사업팀 팀장  
 “경제·성별·인종 등 다양한 불평등을 넘어 포용적 사회로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 정환훈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그럼에도  
 ‘다시 민주주의’,  
 ‘시민 희망권’을  
 일궈야

“우리나라의 뜨거운 감자, 민주주의의 근간부터 일상 속 민주주의 실현은 어떤 모습일까” - 방연주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이론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내 삶과 맞아있는 참여, 주체적 경험의 장을 마련하고 시도하는 것. 모이고 떠드는 일이 왜 필요한지 ‘일상 민주주의’가 주목 받지 않을까” - 안수정 지역정책팀 연구원  
 “시민이 희망할 수 있는 권리, 탄핵과 대선 이후 스스로 희망을 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높아질 것이고, 이에 대한 요구가 모일 것 같다” - 오지은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촛불세대에게 배우는 민주주의의 대안적 프레임이 안착하여 작동하기 위해 희망제작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유혜승 희망기획팀 팀장  
 “제왕적 리더십을 견제하는 시민권력, 이제 권력자들이 시민을 전보다 좀 더 두려워하지 않을까” - 임은영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연구원들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여파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금리인상  
 기본소득  
 보호무역  
 탈진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전 세계와 국내 부동산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 조현진 시민사업팀 연구원  
 “2016년 전 세계를 사로잡은 구호, 중세논의를 동반한 ‘한국형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정의롭고 실용적인 형태로” - 백희원 시민사업팀 연구원  
 “미국의 보호무역이 여러 국가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줄 것 같다” - 오승화 웹팀 연구원  
 “이성적 사고와 사실보다는 감정적 호소가 우위에 있다는 탈진실(Post-Truth),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인가” - 김지현 지역정책팀 팀장



## 희망제작소, 그것을 알려주마

매일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 역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이들에게도 지치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조직문화'입니다. 자유로운 소통과 즐겁고 활기찬 일터를 지향하는 희망제작소의 조직문화는 어떨까요? 맛보기로 일부만 살짝 보여드립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숫자  
3, 5, 7, 10을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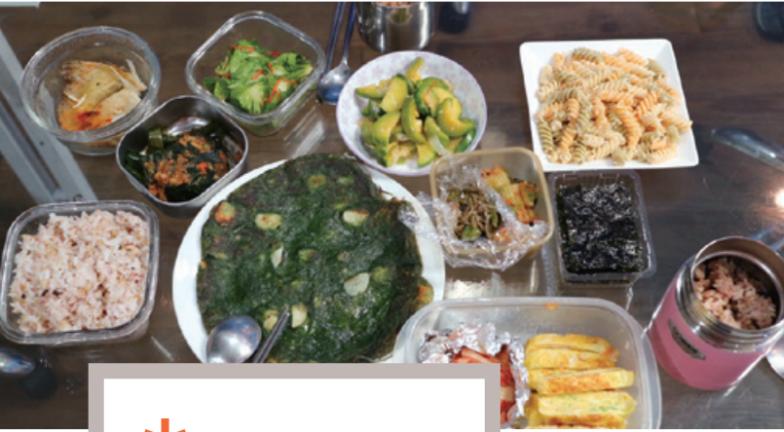
희망제작소는 3년과 5년의 근속 연구원에게 1개월, 7년 근속 연구원에게 3개월, 10년 근속 연구원에게 1년의 안식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휴가를 통해 업무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자기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은영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2016년 7월 안식 휴가(3년 근속)

지구 반대편, 그것도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곳에 가면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했을 때 지인들은 하나 같이 '미야 되기 딱 좋다'는 표현을 썼다. 아나나 다들까. 스무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낯선 땅은 호락호락 하지 않았다. 당황하고 울음이 터져나왔지만 계속 걸었다. 누구라도, 무엇이든 만나겠지라는 생각이었다. 쿠바에서 술한 사람을 만났고 술한 사건에 직면했다. 그리고 인생에서 정해진 단 하나의 답을 찾으려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다.

**이원혜 후원사업팀 팀장**  
2016년 8월 안식 휴가(3년 근속)

내비게이션도 없는 사막을 종일 달리다보면 어딘가 도착해 있지. 차가 고장 나서 몇 시간을 사막에 서 있기는 해도 길을 잃지는 않아. 지평선에 걸쳐 있는 바다 같은 신기루도, 뺄만 남은 채 사막에 누워 있는 들소의 삶도, 저 너머 보이지 않는 어딘가로 이어지고 있는 듯했어. 그게 문득 위안이 되던 곳. 기껏 열흘 남짓 고비사막을 거닐다 돌아온 일상이 그래도 견딜만했던 건, 조금 헤매더라도 어딘가로 열심히 가고 있다면 괜찮다고 속삭이던 모래바람의 위로 덕분이었지.



\*

쿵쿵,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

Why not?  
'누구나학교'

\*

아이디어와  
혁신을 위한  
'진짜' 회의

\*

다니고 싶은  
직장 만들기

쿵쿵, 평일 점심시간이 되면 희망제작소 3층에 맛있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희망제작소의 많은 연구원은 매끼 점심을 나가서 사 먹지 않고 도시락을 싸 오는데요. 건강한 재료와 조미료 쓰지 않은 반찬으로 건강해지고, 돈까지 아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요. 따뜻한 날에는 도시락을 들고 근처 공원이나 계곡으로 잠깐의 나들이를 가기도 한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누구나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악기연주, 사주팔자 풀이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나 기본소득, 육아, CSR, 보고서 꿀팁 등 관심 주제 내용을 다른 연구원과 공유하는 기회가 수시로 마련됩니다. 또한 프로젝트 마무리 시점에는 전체 연구원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지는데요. 서로의 사업을 이해하고 부서 간 장벽을 없애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회의시간에는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직급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아이디어라고 해도 면박을 주거나 쉽게 넘기지 않습니다. 형식과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카페나 음식점에서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디어와 혁신을 끌어내기 위해 틀과 형식을 과감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정기적인 공동체 행사를 통해 연구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협의체 '연회'를 통해 연구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합니다. 이를 통해 다니고 싶은 직장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연구원이 보내는 편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더블하고 싶은, 연구원들의 편지를 전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역할을 하든, 우리는 서로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든 크든, 낮은 높은, 빠르든 느리든, 성글든 뻑뻑하든 2017년에는 모두가 희망 한 그루 정성스레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르지도 안일하지도 않게 일상을 채우며 언젠가 만날 숲을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 목민관클럽팀 이민영 선임연구원



“희망제작소는 어떤 희망을 제작하나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하는 곳인가요?  
딱 떨어지는 명쾌한 답은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희망’을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에 휩쓸리지 않고 남이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한 걸음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 지역정책팀 안수정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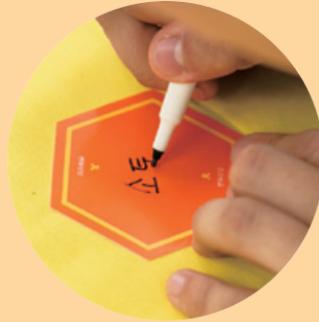
“2016년을 잊지 않고, 서서히, 단단하게! 변화를 위해 다양하고 때로는 신기하게!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제작소가, 희망제작소의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 시민사업팀 강현주 팀장



“보편적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희망합니다. 지난 시간,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절망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 나쁜 일을 했으면 벌을 받고, 노동한 만큼 대우를 받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당연하지만 아직 당연하지 않은 보편적인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웹팀 안영삼 팀장



“희망제작소는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를 이어갑니다. 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을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노동과 관련한 비정상적인 법제도와 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제안을 모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사회의제팀 황세원 선임연구원



“여름밤 가로수 길을 산책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사뻏히, 신나고 설레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마음 함께 갖길 바랍니다.”

- 경영지원실 박정호 연구원



“나도 할 수 있어!, ‘까짓 거 한 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행동할 때 우리 사회는 변합니다. 시민이, 바로 나와 당신이 사회혁신의 주체입니다. 2017년 희망제작소가 더 많은 시민을 만나 더 많은 생각을 접하고 더 많은 대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튼튼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희망을 더블합시다!”

- 후원사업팀 박다겸 연구원



“작년 희망제작소 사무식 때 스스로에게 보낸 편지에는 ‘1년이 지난 오늘은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이 적혀있었습니다. 1년이 흐른 지금 시민은 자발적으로 모여 목소리를 내고, ‘희망’을 일구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목소리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다시 민주주의’를 외치며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 희망기획팀 유혜승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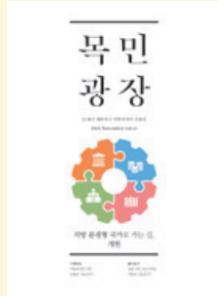


# 지혜의 숲 희망제작소 발간자료집

2016년 희망제작소에서 발간한 자료집을 소개합니다.  
희망제작소 홈페이지(www.makehope.org)에 오시면, 더 많은 발간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10호 목민광장**  
2016.05.16.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지방정부가 내세우는 청년정책과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반년간지



**제11호 목민광장**  
2016.11.15.  
'지방분권형 국가로 가는 길, 개헌'  
북유럽 연수를 통해 진로정책을  
짚어보고, 지역사회 진로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모색한 반년간지



**[희망리포트 2016-01]  
대학 청소노동자의  
대안고용모델 탐색  
- 사다리포럼을 통한 현장형  
해법 발굴**  
2016.03.28.  
고용안정과 임금상승 등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청소서비스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는 대안고용모델을 탐색하는  
연구보고서



**[희망리포트 2016-02]  
불안한 청춘, 대학을 말하다**  
2016.03.28.  
대학생 20명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 학생의 권리와 복지,  
이들의 생활세계 등 대학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연구보고서



**[희망리포트 2016-03]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2016.05.10.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 스스로 좋은 대표·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아보고,  
시민참여형 정치토론의 방법과  
대안을 모색한 연구보고서



**[희망리포트 2016-04]  
청소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OO실험실  
-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과  
함께 한 146일**  
2016.05.23.  
청소년과 함께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 23명이 146일간  
사회참여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짚어본 연구보고서



**[희망리포트 2016-05]  
좋은 일의 기준을 찾자**  
2016.08.16.  
우리 사회 '좋은 일의 상(像)'은  
무엇일까. 세대별, 상황별 시민에게  
'좋은 일'의 기준을 들어보고,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해주는 연구보고서



**[희망리포트 2016-06]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6 시민희망지수  
- 시민희망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2016.11.22.  
개인의 삶과 사회에 대한 희망인식을  
알아보고, 한국사회를 진단한  
연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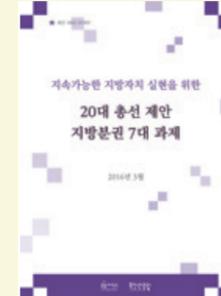
**[희망리포트 2016-07]  
다문화정책 연구보고서  
- 새로운 모색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2016.12.06.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대비하여  
앞으로 10년의 다문화정책과 방향을  
제언한 연구보고서



**[희망이슈 365]  
우리시대 다시 희망찾기  
- 2016 희망이슈 묶음집**  
2016.12.30.  
2016년 한 해 동안 발행한  
<희망이슈>를 묶은 합본호로,  
일상, 지역과 사회, 시대 등 세 가지  
키워드로 다양한 연구와 보고서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집



**헌잡 즐겁게 새잡 다오**  
2016.10.17.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진행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  
프로젝트 연재글과 '좋은 일 기준'  
을 찾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1만5천  
명이 넘는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낸 단행본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2016.03.15.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 요구를 담은 제안서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  
2016.07.19.  
아파트공동체의 발전 및  
경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해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지침서



**아름다운재단 사업범주  
'변화의 시나리오' 연구용역**  
2016.11.21.  
아름다운재단의 8개 목적사업범주  
영역의 '변화의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기준을 도출하고, 달성과제를  
제시한 연구보고서



## 시민의 상상과 참여로, 불평등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대안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희망제작소가 한국사회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민과 변화와 혁신을 일궈왔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한국사회는 불평등의 확대와 민주주의 후퇴를 겪으며 많은 국민이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절망과 좌절을 긍정과 용기로 극복하여 다시 민주주의를 세우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희망제작소가 말하는 희망은 '시민의 일상과 그 시민이 살아가는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시민 스스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희망제작소는 2017년 핵심기조를 '시민의 상상과 참여로, 불평등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대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3가지 목표와 7가지 추진전략을 세웠습니다.

### 3가지 목표로 더 큰 그림을 만들겠습니다.

- 첫째, 불평등과 민주주의 의제를 발전시키고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둘째, 현장과 지역의 변화를 위한 의제와 방법론을 심화하겠습니다.
- 셋째, 시민의 상상과 참여를 통한 시민기반의 문화를 강화하겠습니다.

### 7가지 추진전략으로 더 단단하게 내용을 채우겠습니다.

- 첫째,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을 위한 의제를 심화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펼쳐나갑니다.
- 둘째, 연구와 사업결과에 따른 각종 의제발신을 강화하며 매체를 다각화할 것입니다.
- 셋째, 다양한 시민참여사업을 통해 꿈꾸는 시민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 넷째, 일하고 배우는 조직문화를 통해 희망제작소 연구원의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 다섯째, 버팀목이 되어주는 든든한 후원회원을 자주 만나고, 후원배가운동을 통해 재정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여섯째, 시민과 후원회원이 함께하는 시민소통플랫폼을 위해 장기적 사옥마련을 준비합니다.
- 일곱째, 희망제작소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며, 재미있게 상상하고 즐겁게 일하는 선도적 조직혁신과 실험을 펼칠 것입니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삶 그리고 지역이라는 삶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연구와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박진교 박진영 박진용 박진우 박진형 박진호 박진희 박찬서 박찬옥 박찬웅 박찬이 박찬익 박창근 박창원 박창조 박창주 박창호  
 박재연 박철 박철은 박초롱 박춘미 박춘희 박치득 박치용 박태량 박태수 박태일 박태주 박태환 박토마스상진 박항기 박해주  
 박행복 박현 박현석 박현수 박현숙 박현식 박현영 박현정 박현주 박현호 박현희 박형민 박형욱 박형욱 박형준 박혜란 박혜린  
 박혜림 박혜미 박혜인 박혜원 박혜은 박호순 박호정 박호황 박홍규 박홍중 박화영 박효석 박효진 박훈재 박희경 박희선 박희숙  
 반기민 반민규 방기관 방동필 방서은 방세근 방순홍 방영배 방요규 방정재 방지현 방지영 방혜원 방호정 배국진 배규식  
 배금자 배문정 배민경 배병우 배선임 배선화 배성한 배성훈 배소라 배소영 배수연 배수진 배양숙 배영민 배영순 배영욱 배영진  
 배운기 배원열 배유리 배재환 배정민 배정화 배정훈 배종인 배종현 배지우 배진희 배태영 배현주 백경호 백관숙 백금선 백낙현  
 백대현 백영수 백문열 백민정 백상현 백서윤 백석인 백승이 백승교 백승무 백승아 백승인 백승철 백승하 백승훈 백영호 백원호  
 백운애 백은옥 백인용 백인화 백인환 백정숙 백정호 백재국 백중하 백준기 백진자 백학순 백현숙 백현욱 백현주 백현호  
 뱅가즈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우리하로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한누리 법안스님 변경희 변광석 변신화 변성혁 변안수 변장석 변재용 변준재  
 변찬란 변형구 복인웅 복일해 봉민숙 봉재원 봉혜영 부근립 부윤경 빈정호 서경득 서경미 서경민 서경주 서기원 서기호 서난원  
 서동영 서동욱 서동혁 서명섭 서명희 서미정 서민태 서병훈 서삼호 서상교 서상인 서선영 서성민 서수정 서수진 서수형 서순현  
 서슬기 서승범 서승욱 서영덕 서영수 서영태 서용석 서용철 서운석 서원명 서유나 서유수 서윤진 서은선 서은승 서은숙 서재규  
 서재철 서재호 서정범 서정보 서정순 서정호 서정희 서중근 서중인 서중현 서지현 서준호 서지현 서지현 서진권 서진미  
 서진원 서중모 서한석 서현 서현정 서혜경 서혜정 서혜진 서홍중 서희 서희경 서희용 석기석 석락희 석상열 석승우 석승징  
 석정희 석춘지 선권수 선두남 선문숙 선미라 선보영 선윤식 선현주 설수정 설지원 설창환 설태민 설환준 성갑선 성공스님 성기환  
 성낙진 성다움 성미령 성상희 성수경 성수현 성숙경 성순근 성연수 성외관 성원선 성윤주 성정수 성정오 성종남 성종훈 성지은  
 성장민 성한표 성행자 성현주 세무법인청담 소단영 소병훈 소순일 소영수 소정숙 소준노 소천영 손경희 손기순 손동환 손명숙  
 손민정 손민지 손민진 손별 손봉희 손선숙 손성실 손세미 손애리 손연희 손열 손영란 손영목 손영우 손영주 손은희 손인권  
 손재환 손정아 손정화 손제희 손준희 손준혁 손지열 손진영 손진운 손태광 손현성 손환선 손환철 손효주 송건 송경애 송경태  
 송교필 송귀중 송기용 송기철 송기택 송기호 송길섭 송남근 송대화 송동준 송만규 송미숙 송미중 송미진 송민영 송민재 송병주  
 송부영 송석윤 송소연 송수근 송수진 송순기 송순인 송순희 송아영 송연희 송영선 송영진 송예진 송옥분 송우덕 송용숙 송유경  
 송유미 송유빈 송준경 송진근 송진세 송진혜 송일남 송지은 송재순 송재택 송재복 송정대 송종호 송중화  
 송주미 송준아 송중택 송진선 송창석 송창서 송창호 송태섭 송태준 송태호 송택진 송향숙 송현석 송혁기  
 송혁진 송현우 송현준 송현진 송형록 송형주 송형진 송혜섭 송혜승 송혜영 송희진 스페셜시티엠 신경구 신경아 신경희 신광수  
 신국섭 신권수 신기수 신덕순 신도환 신동기 신동룡 신동민 신동숙 신동호 신두철 신만승 신면섭 신명섭 신문경 신미숙 신병철  
 신보영 신봉승 신부순 신상열 신서인 신석민 신석현 신성식 신성욱 신송학 신수원 신숙 신승백 신승은 신아영 신연숙 신영미  
 신영철 신용재 신우경 신원철 신유철 신은지 신은희 신일현 신재민 신재위 신재호 신재홍 신정균 신정민 신정아 신정원 신정자  
 신정희 신제철 신종관 신종태 신지영 신지현 신진숙 신찬수 신철호 신중섭 신학재 신해영 신현경 신현만 신현철 신현주 신현환  
 신현희 신혜령 신혜미 신혜진 신호선 신호재 신호창 신호철 신효정 신효진 심경섭 심동섭 심석태 심선희 심수미 심수영 심영구  
 심우만 심우영 심우진 심은희 심의용 심재민 심재복 심재섭 심재호 심정희 심준형 심지영 심지혜 심현정 심형섭 심화섭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아영창 안강희 안경남 안계근 안관국 안광수 안광원 안국진 안기영 안난숙 안다연 안동균 안명희 안문숙 안미숙  
 안미영 안미희 안보연 안복남 안상용 안상현 안석민 안선영 안성민 안성식 안성은 안성진 안성항 안성호 안세주 안수정 안순억  
 안슬기 안승봉 안승식 안영규 안영도 안영삼 안영주 안영환 안예리 안유희 안윤경 안윤정 안은경 안은미 안재기 안재철 안재현  
 안재현 안재홍 안정 안정경 안정숙 안정애 안정화 안중록 안중혁 안중락 안지윤 안진우 안진환 안채윤 안총환 안치용 안필진  
 안향미 안현경 안현희 안형주 안혜란 안혜숙 안혜신 안혜정 안혜진 안호근 안호영 안화연 안효숙 알파주식회사 양갑현 양권일  
 양금주 양기근 양다미 양덕금 양명균 양문숙 양미자 양미희 양민숙 양민승 양민영 양병찬 양봉숙 양상철 양석원 양성우 양숙자  
 양승재 양승조 양승철 양승철 양시모 양시원 양여진 양영희 양원범 양우임 양우진 양우혁 양원석 양원철 양원태 양유나 양유라  
 양유정 양윤순 양은주 양은혜 양인수 양인숙 양인실 양재우 양재중 양재학 양전욱 양정선 양정언 양중희 양주훈 양중석 양진원  
 양진주 양창영 양창익 양춘선 양춘승 양태열 양태희 양택관 양항숙 양현준 양혜란 양혜선 양희진 어수갑 어운재 엄경미 엄경선  
 엄대진 엄상현 엄용태 엄의식 엄정미 엄정희 엄준호 엄지선 엄진주 엄태주 엄현진 여수경 여승철 여은희 여재영 여태전  
 여현호 여혜선 여희승 연규연 연성만 연성만 연숙진 연건 연경형 연영하 연영화 연진근 연태영 예병관 예중현 오강임 오석조  
 오남성 오남준 오내승 오대균 오덕만 오동근 오동렬 오동운 오명철 오문수 오미령 오미숙 오미영 오민석 오상세 오상현 오상조  
 오석호 오선아 오선화 오설자 오성문 오성현 오세규 오세범 오세연 오세정 오세희 오수권 오승렬 오승섭 오승환 오연석  
 오연주 오연호 오영수 오영진 오영훈 오영희 오예진 오요환 오용주 오용탁 오우식 오원진 오유진 오윤영 오윤정 오은경 오은애  
 오장환 오재열 오재현 오정란 오정림 오정숙 오정은 오제택 오중혁 오주평 오주현 오준영 오지연 오지은 오진락 오진숙 오진이  
 오진탁 오창진 오재현 오철수 오충걸 오충근 오충섭 오치성 오탁근 오태희 오한섭 오현경 오현석 오현숙 오형철 오호진 옥세진

옥진호 옥흠 은정약국 오미란 왕미녀 왕준연 왕지용 왕춘숙 왕혜정 용윤실 우건곤 우경남 우성란 우성실 우성희 우연창 우영숙  
 우영재 우영진 우원식 우원태 우은주 우재식 우지희 우화자 울돌목가길 원경호 원기준 원대로 원동희 원라미 원영남 원명희  
 원삼규 원영찬 원우식 원유광 원유미 원유준 원유희 원재희 원정연 원종아 원종철 원길연 위명은 위성근 위건식 유경희 유광근  
 유광열 유광희 유귀숙 유규창 유금자 유길문 유난미 유대근 유대기 유덕수 유동만 유동애 유동열 유동환 유미화 유민석 유민욱  
 유병국 유병권 유보성 유상모 유상훈 유선미 유선아 유선애 유선욱 유성일 유성환 유수림 유승목 유승우 유승익 유승희  
 유시주 유시춘 유안리 유양하 유양현 유영식 유영길 유영만 유영미 유영민 유영아 유영중 유영준 유영화 유용덕 유용문 유용준  
 유윤식 유유희 유은정 유은주 유의연 유인선 유일상 유일선 유장휴 유재경 유재란 유재민 유재선 유재훈 유정만 유정수 유정욱  
 유정현 유정화 유주연 유주희 유준열 유지균 유지명 유지숙 유지환 유창선 유창진 유창환 유춘근 유탁균 유택근 유하늘 유한근  
 유해민 유해진 유현석 유현영 유현오 유현정 유현걸 유형근 유형준 유혜원 유호근 유효진 유홍숙 유희숙 육기승 육소희 육정화  
 윤경아 윤경자 윤경춘 윤경희 윤귀현 윤규식 윤기자 윤기훈 윤다옥 윤다정 윤다혜 윤덕규 윤도현 윤모아 윤미 윤미경 윤미영  
 윤미정 윤상식 윤서영 윤석규 윤석인 윤석현 윤선규 윤선화 윤성순 윤성욱 윤성혜 윤성희 윤소천 윤수영 윤수현 윤숙자 윤순영  
 윤순진 윤순천 윤승민 윤승용 윤승희 윤신요 윤아란 윤애숙 윤여병 윤여민 윤영률 윤영실 윤영욱 윤영주 윤영호 윤요섭 윤용석  
 윤용찬 윤용출 윤용섭 윤용혁 윤은기 윤은선 윤인발 윤인철 윤재병 윤재연 윤재은 윤정선 윤정용 윤정원 윤정주 윤정혜 윤제용  
 윤제안 윤중숙 윤중오 윤중익 윤준국 윤혜진 윤화섭 윤효식 윤효주 윤희 윤희운 은수진 은영 은정주 은지영 은탁 이가람  
 이갑섭 이갑수 이강산 이강오 이강일 이강주 이강주 이강학 이건웅 이건홍 이건희 이경규 이경남 이경미 이경민 이경배 이경복  
 이경선 이경수 이경숙 이경아 이경애 이경열 이경영 이경욱 이경우 이경욱 이경은 이경자 이경중 이경진 이경찬 이경채 이경철  
 이경현 이경혜 이경희 이계림 이계성 이계안 이광연 이국노 이군섭 이권수 이권의 이귀희 이근국 이근규 이근만 이근영 이근우  
 이근정 이근형 이금상 이금자 이금주 이금천 이기섭 이기원 이기자 이기재 이기준 이기천 이기현 이기훈 이길용 이나라 이나미  
 이나영 이난수 이난숙 이남연 이남욱 이남표 이내경 이달훈 이대공 이대능 이대웅 이대택 이덕우 이덕희 이도찬 이동 이동규  
 이동섭 이동수 이동은 이동주 이동중 이동진 이동출 이동현 이동호 이동환 이동훈 이동희 이득영 이득철 이란이 이로운 이리나  
 이마리아 이만성 이만열 이명근 이명구 이명나 이명란 이명민 이명미 이명복 이명숙 이명우 이명준 이명진 이명희 이무열 이문갑 이문구  
 이문자 이문재 이문희 이미경 이미나 이미나 이미란 이미리 이미희 이미애 이미영 이미자 이미정 이미희 이미향 이미희 이민선 이민숙  
 이민자 이민영 이민정 이민주 이민진 이민형 이범 이범석 이범관 이범노 이범오 이범문 이범석 이범찬 이범창 이범한  
 이병화 이병훈 이보라 이보비 이보삼 이보연 이보영 이봉금 이봉수 이봉용 이빈파 이산 이상희 이상구 이상규 이상기 이상길  
 이상대 이상덕 이상림 이상면 이상미 이상민 이상범 이상봉 이상석 이상실 이상아 이상연 이상엽 이상용 이상욱 이상원 이상준  
 이상철 이상현 이상현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세복 이서철 이석경 이석모 이석문 이석재 이석준 이석호 이석훈 이석희 이선  
 이선매 이선미 이선아 이선애 이선진 이선형 이선혜 이선홍 이선훈 이선희 이성 이상수 이상숙 이상암 이상요 이상용 이상우  
 이성은 이상일 이상준 이성희 이세리 이세숙 이세향 이소림 이소영 이소원 이소정 이소현 이수경 이수관 이수광 이수안 이수연  
 이수정 이수진 이숙경 이순녀 이순덕 이순열 이순자 이순향 이순희 이슬 이슬기 이슬비 이슬민 이슬영 이슬용 이슬우 이슬재  
 이승준 이승진 이승철 이승현 이승호 이승훈 이시내 이시은 이시호 이신혜 이아림 이아영 이안교 이애희 이양선 이양주 이양희  
 이여진 이연 이연빈 이연수 이연숙 이연주 이연지 이영진 이영철 이영춘 이영택 이영학 이영호 이영화 이영훈 이예림 이예소 이육경  
 이영관 이영욱 이영음 이영일 이영주 이영지 이영진 이영철 이영춘 이영택 이영학 이영호 이영화 이영훈 이예림 이예소 이육경  
 이옥금 이옥선 이옥성 이옥숙 이옥자 이왕규 이왕준 이용관 이용규 이용기 이용숙 이용우 이용원 이용준 이용찬 이용철 이용훈  
 이우연 이우영 이우철 이옥자 이옥주 이웅장 이웅희 이원근 이원덕 이원도 이원목 이원보 이원재 이원진 이원혜 이원호 이유나  
 이유빈 이유식 이유영 이유정 이유진 이유희 이윤경 이윤구 이윤모 이윤미 이윤배 이윤정 이윤호 이윤환 이윤희 이은경 이은려  
 이은미 이은상 이은석 이은선 이은숙 이은심 이은애 이은영 이은욱 이은정 이은주 이은지 이은진 이은혜 이은희 이을석 이용훈  
 이의인 이의중 이인규 이인동 이인석 이인선 이인숙 이인식 이인실 이인안 이인태 이일구 이일숙 이일용 이일하 이임복 이자영  
 이재갑 이재경 이재광 이재국 이재규 이재령 이재섭 이재수 이재승 이재열 이재영 이재왕 이재욱 이재유 이재은 이재천 이재철  
 이재필 이재혁 이재현 이재호 이재화 이재황 이재훈 이진영 이정욱 이정호 이정근 이종도 이종민 이종명 이종문 이종미 이종봉 이종성  
 이정숙 이정철 이재경 이재영 이제이 이제학 이초희 이초희 이준근 이준도 이준린 이준명 이준문 이준미 이준봉 이준성 이준식  
 이종아 이종욱 이종찬 이종택 이종학 이종혁 이종현 이주식 이주연 이주현 이주학 이주한 이주현 이주희 이준범 이준복  
 이준식 이준영 이준욱 이준행 이준호 이준욱 이준호 이지민 이지수 이지연 이지영 이지완 이지욱 이지원 이지는 이지중 이지혜  
 이지호 이지훈 이진 이진경 이진복 이진선 이진순 이진여 이진영 이진우 이진하 이진홍 이진화 이진희 이찬우 이찬욱  
 이찬희 이창국 이창수 이창식 이창우 이창원 이창준 이창한 이창환 이창희 이채용 이천근 이천우 이철구 이철범 이철수 이철원  
 이철호 이철훈 이창원 이춘로 이춘삼 이춘섭 이춘기 이춘엽 이춘현 이춘희 이태규 이태근 이태선 이태성 이태호 이태환 이태희

이판도 이하영 이하주 이하진 이학남 이학노 이학희 이한구 이한성 이한진 이한철 이해근 이해란 이해선 이해숙 이해식 이해영  
 이해완 이해진 이하림 이혁성 이혁우 이현규 이현무 이현미 이현숙 이현정 이현중 이현주 이현준 이현진 이형구 이형범 이형숙  
 이형자 이형주 이형학 이혜경 이혜란 이혜명 이혜숙 이혜연 이혜영 이혜옥 이혜원 이혜인 이혜정 이혜진 이호경 이호근 이호규  
 이호석 이호섭 이호원 이호인 이호준 이호진 이화영 이화철 이환열 이황 이효상 이효순 이효율 이후술 이훈 이훈희 이홍래  
 이희걸 이희경 이희석 이희성 이희승 이희숙 이희영 이희정 이희중 이희진 인성분 인은숙 임경숙 임경애 임경택 임국진 임근래  
 임나현 임대홍 임도경 임동준 임동진 임명숙 임범진 임병석 임복철 임선옥 임성미 임성주 임세혁 임수진 임승국 임승철 임양묵  
 임영래 임영신 임영일 임영택 임영해 임예원 임예지 임오승 임완숙 임용성 임용환 임우진 임원식 임원영 임원택 임윤경 임윤서  
 임윤진 임은경 임은미 임은영 임은주 임은하 임응순 임인규 임인자 임자인 임재연 임정미 임정빈 임정숙 임정업 임정은 임정민  
 임철진 임춘성 임태홍 임행미 임혁 임현규 임현식 임현정 임현주 임형식 임형주 임형철 임형택 임혜영 임호수 임호택 임홍탁  
 임희경 장경미 장경욱 장경호 장규성 장근수 장근화 장금순 장기석 장다영 장대도 장동일 장동찬 장동하 장명옥 장미옥  
 장미정 장미희 장민경 장민석 장병영 장병학 장병화 장복규 장복순 장석 장석한 장선례 장선희 장철자 장성민 장성한 장세훈  
 장숙이 장승욱 장연규 장연정 장영덕 장영란 장영희 장재영 장재익 장재현 장재형 장재환 장정우 장정희 장중혁 장중호  
 장주열 장준영 장준화 장지연 장진기 장진성 장진영 장진우 장진원 장진주 장진호 장창덕 장재순 장철호 장춘화 장태복 장태영  
 장필호 장한별 장항자 장현 장현숙 장현철 장현희 장혜경 장혜정 장혜지 장홍근 장홍석 장훈열 장희영 장희욱 장희정 전기성  
 전귀정 전규석 전금 전금석 전기택 전남경 전달래 전대욱 전대진 전돈일 전만춘 전명국 전명숙 전미례 전미진 전미학 전민주  
 전병길 전봉석 전상용 전상호 전선녀 전선희 전성호 전수영 전수정 전수진 전순림 전순완 전승훈 전승희 전시는 전영미 전영원  
 전영재 전예진 전옥경 전옥진 전우배 전유미 전인숙 전일교 전재은 전재환 전정식 전정연 전조민 전중우 전준형 전중호 전지영  
 전지은 전진 전진아 전진영 전태윤 전평 전하얀 전하영 전향란 전형준 전혜경 전혜원 전홍식 전환길 전환주 전희식 전희춘  
 정건화 정경미 정경숙 정경아 정경원 정계태 정광숙 정광영 정광임 정광필 정광희 정권화 정귀욱 정규욱 정규호 정근철 정금채  
 정기욱 정기웅 정기일 정기재 정기홍 정낙섭 정낙식 정남섭 정남숙 정다영 정다운 정다정 정다희 정대웅 정대이 정동명 정동영  
 정동욱 정동준 정민우 정민우 정민수 정민재 정병길 정병성 정병호 정병화 정보현 정봉은 정사랑 정삼숙 정삼진 정삼성  
 정민화 정민기 정민도 정민우 정민재 정병길 정병성 정병호 정병화 정보현 정봉은 정사랑 정삼숙 정삼진 정삼성  
 정상규 정상덕 정상섭 정상오 정상택 정상훈 정새롬 정서영 정석윤 정선영 정선숙 정선주 정선화 정성국 정성남 정성만 정성섭  
 정성애 정성용 정성우 정성원 정성일 정성한 정성훈 정성희 정세균 정세빈 정세영 정세용 정세진 정세희 정소익 정수미 정수열  
 정수원 정수진 정순자 정순진 정순혁 정순호 정승우 정아영 정양심 정양임 정연수 정연욱 정연호 정연희 정영규 정영근 정영기  
 정영배 정영선 정영수 정영숙 정영아 정영애 정영오 정영욱 정영이 정영일 정영택 정영희 정예진 정옥희 정완숙 정용선 정용우  
 정용욱 정용운 정용재 정용호 정우식 정우용 정운봉 정원모 정원오 정유경 정유락 정유석 정유진 정유화 정윤모 정윤미 정윤복  
 정윤상 정은 정은경 정은령 정은숙 정은주 정은혁 정은화 정은호 정의숙 정의진 정의교 정의기 정인 정인숙 정인조 정인택  
 정인환 정일영 정지원 정재규 정재선 정재승 정재식 정재우 정재윤 정재익 정재정 정재철 정재혁 정정훈 정제봉 정제익 정종경  
 정종일 정종혁 정주량 정주형 정주환 정준모 정준용 정지강 정지선 정지연 정지영 정지훈 정진섭 정진수 정진영 정진성  
 정진우 정진철 정진행 정찬용 정창고 정창기 정창남 정창섭 정철원 정철현 정철호 정태욱 정태흙 정택동 정필홍 정하성 정한성  
 정한수 정해경 정해자 정현모 정현미 정현숙 정현순 정현욱 정현주 정현진 정현철 정현태 정형자 정혜숙 정혜영 정혜옥 정효영  
 정화영 정환수 정희업 정효숙 정효은 정효주 정홍락 정희선 정희숙 정희순 정희욱 정희정 제미경 제민준 제윤경 제희원 조강주  
 조경남 조경래 조경숙 조경실 조경아 조경오 조경현 조경화 조계숙 조계현 조관연 조광모 조광연 조광현 조권희 조규선 조규영  
 조규주 조길래 조나영 조달순 조동성 조동진 조동희 조두현 조랑현 조명제 조명현 조명화 조미은 조미자 조미정 조민 조민정  
 조병웅 조병일 조병연 조상민 조상욱 조상현 조서은 조선희 조성갑 조성경 조성국 조성룡 조성문 조성범 조성오 조성임 조성재  
 조성진 조성주 조성형 조성환 조세연 조세화 조송현 조수미 조수영 조수현 조숙영 조숙임 조순동 조승연 조승현 조아라 조아영  
 조아진 조애영 조연미 조연욱 조연희 조영미 조영욱 조영중 조영현 조영호 조영화 조예지 조예현 조용경 조용남 조용민  
 조윤진 조윤환 조원봉 조원필 조원희 조유순 조윤미 조윤주 조은수 조은영 조은정 조은하 조은현 조은혜 조이숙 조이환  
 조인선 조인성 조인현 조인혜 조장래 조재범 조재원 조재민 조재화 조재순 조재민 조정민 조정숙 조정은 조정자 조정하 조정화  
 조정훈 조정희 조종철 조주연 조준우 조준행 조준호 조지연 조지형 조진영 조진현 조진희 조창근 조창현 조천수 조춘원 조태기  
 조태민 조태운 조태진 조태훈 조한중 조항미 조항원 조해권 조항 조현순 조현중 조현진 조현희 조형중 조혜련 조혜숙 조혜원  
 조호상 조호수 조희정 종인선 주경신 주경희 (주)교보생명보험 주귀련 주낙영 주다영 주다운 주민선 주민하 주범수 주식주 주식미  
 주성현 주성호 주성희 주세연 주수원 주승용 주식회사 에코스타 주식회사삼호더래버러토리 주영애 주은수 주인석 주재록 주중연 주지혜  
 주창호 주현 주현성 주혜경 주혜진 지경배 지관근 지덕근 지상현 지선경 지선명 지선영 지선우 지애중 지역활성화센터 지오

지우건설 지은주 지정구 지정배 지정순 지혜빈 진경배 진규업 진명희 진수경 진수현 진신정 진안민 진우삼 진재선 진하늘 진하람  
 진해성 진화삼 차경천 차국린 차다운 차명례 차명미 차미경 차민경 차병률 차선주 차성수 차성현 차수옥 차순덕 차승현 차영미  
 차영준 차윤미 차윤주 차윤호 차의복 차철욱 차태정 차혜란 차호석 차희석 차광선 차명보 차미경 차범진 차상우 차수덕 차영길  
 차영주 차옥경 차준호 차지연 차효정 차희경 차희령 천강희 천경송 천경희 천관희 천서영 천원주 천은호 천장호 천재박 천하람  
 천홍주 천희진 최갑선 최갑진 최강현 최경련 최경수 최경식 최경일 최명철 최명환 최명희 최문성 최문자 최문정 최문주 최문현 최문혁 최미숙  
 최국식 최기동 최기배 최남춘 최동석 최동식 최명자 최명철 최명환 최명희 최문성 최문자 최문정 최문주 최문현 최문혁 최미숙  
 최미욱 최미은 최미화 최민규 최민준 최병대 최병수 최병일 최병재 최병주 최병태 최보경 최보순 최본 최봉남 최봉주 최부휴  
 최상순 최상아 최상용 최상원 최상호 최서영 최석구 최석호 최선경 최선아 최선옥 최선재 최선희 최성범 최성복 최성신 최성원  
 최성중 최성준 최성희 최세문 최세영 최세정 최소연 최소영 최수미 최수아 최수정 최순희 최순관 최승연 최승일 최승현 최시안  
 최신형 최실경 최양수 최연미 최연서 최영 최영동 최영미 최영수 최영숙 최영식 최영애 최영운 최영주 최영준 최영호 최영환  
 최영훈 최영희 최예경 최예준 최완규 최요셉 최윤관 최용근 최용대 최용배 최용식 최용신 최용수 최용환 최욱 최은일 최웅집  
 최원배 최원호 최유라 최유선 최유재 최유진 최윤규 최윤석 최윤선 최윤필 최은석 최은숙 최은아 최은양 최은영 최은하 최의상  
 최재복 최재석 최재식 최재영 최재원 최정미 최지영 최지희 최진기 최진기 최진백 최진숙 최진희 최창수 최철수  
 최준용 최준혁 최지미 최지은 최지영 최지희 최진기 최진기 최진백 최진숙 최진희 최창수 최철수  
 최춘식 최태림 최태영 최태욱 최하나 최현나 최한석 최희성 최현 최현미 최현숙 최현정 최현주 최형열 최형욱 최형필 최혜령  
 최혜숙 최혜자 최혜정 최호연 최호열 최호진 최화진 최환규 최취용 최취현 추노을 커북커북 탁나영 탁석한 탁수진 탁주영 탁현민  
 팽춘화 편정자 편하선 표혜정 하기은 하경봉 하동구 하미혜 하상영 하석 하석태 하성민 하성자 하성주 하수영 하수정 하영석  
 하영숙 하영인 하예진 하옥남 하용식 하재천 하재훈 하정관 하진규 하창용 하태현 하현정 한경아 한경애 한경혜 한경희 한광수  
 한국심신기능활성요법지도사회 한국에이오유티컨설팅 한국지매방우동본부 한국컴퓨터재생센터 한금희 한금수 한기성 한대상 한동열 한동우 한만일 한만호  
 한명선 한명자 한명희 한문호 한미라 한미영 한미지 한병업 한병철 한상국 한상엽 한상욱 한상원 한상철 한상현 한석규 한신경  
 한성규 한성주 한성철 한성희 한소연 한송이 한송희 한수정 한수현 한순인 한숨미 한승재 한승희 한양재 한연규 한영미 한영호 한영순  
 한영주 한영희 한우정 한원복 한원식 한원화 한우경 한운주 한운희 한인경 한재우 한재은 한정식 한정태 한정훈 한정호 한준호 한준정  
 한주희 한준택 한지나 한지은 한진경 한진우 한창식 한창욱 한철우 한철수 한현수 한현우 한현준 한현희 한호 한호정 한호준 한호영  
 한홍택 한효순 한희숙 함경숙 함경식 함식 함오연 함재연 함지훈 함철 허문경 허병철 허성식 허성훈 허세기 허승준 허시용  
 허아람 허안숙 허영진 허용권 허유정 허윤영 허윤정 허은영 허은혜 허의 허인 허정미 허정민 허정숙 허주형 허준연 허준혁  
 허지안 허지연 허지윤 허진란 허진영 허찬국 허태욱 허태혁 허해진 허호 허홍열 현경미 현고섭 현관명 현미열 현범휘 현사회  
 현상진 현승자 현승훈 현암섭 현우택 현진호 현춘선 홍갑선 홍경수 홍경숙 홍규창 홍덕표 홍명근 홍명수 홍명자 홍미영 홍민경  
 홍민선 홍봉선 홍사여리 홍사용 홍생 홍선경 홍선미 홍선주 홍선희 홍성경 홍성대 홍성미 홍성범 홍성열 홍성완 홍성진 홍수경  
 홍수연 홍순미 홍순범 홍순애 홍순자 홍순정 홍순창 홍승기 홍승연 홍승현 홍상리 홍아민 홍영기 홍영림 홍윤기 홍원석 홍윤비  
 홍윤석 홍은영 홍인영 홍정림 홍정표 홍정환 홍제남 홍중순 홍주연 홍주의 홍준표 홍준희 홍지민 홍지애 홍지연 홍지영 홍지희  
 홍창선 홍태철 홍향표 홍현주 홍혜숙 황경아 황관연 황남희 황대식 황덕연 황명선 황명화 황미연 황민영 황병민 황상철 황상훈  
 황서현 황석권 황선봉 황선욱 황선주 황선중 황선혜 황성애 황성주 황세원 황수진 황순국 황순복 황순현 황신애 황아미 황영미  
 황영수 황영숙 황영우 황영주 황영철 황옥란 황용운 황우린 황운택 황운규 황원택 황원정 황은경 황은자 황은하 황은희 황의수  
 황의훈 황이수 황인석 황인숙 황인철 황인희 황재순 황재천 황재희 황정욱 황정환 황정희 황주홍 황진선 황진성 황진우 황준욱  
 황태근 황태영 황태주 황풍년 황해진 황현숙 황혜란 황혜선 황효진 황희석 효진 희망주택건축네트워크 (주)푸드포체인지 (주)JSB Inc  
 (주)고어코리아 (주)교포신문사 (주)나무공작소 (주)둘베개 (주)모다그레아 (주)물거 (주)백도씨 (주)북로그컴퍼니 (주)삼경전설  
 (주)삼덕투쿠아스콘 (주)슬루워크 임의근 (주)엠투소프트 (주)영일레이저엔티 (주)원원농수산 (주)유니파티컴퍼니 (주)유브레인커뮤니케이션즈 (주)인사이드99  
 (주)자연인 (주)제이에이치에셋 (주)진학학원 (주)혜성청과 (주)호산농산 (주)휴먼트리

## 희망제작소 사람들

### 이사회

박재승 이사장(법무법인 봄 대표변호사)  
서중석 이사(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유시주 이사(희망제작소 이사)  
윤석인 이사(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윤순진 이사(서울대학교 교수)  
이옥경 이사(희망제작소 이사)  
장병화 이사(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정재승 이사(카이트 교수)  
정지강 이사(전)대한기독교서회 사장)  
오현석 감사(공인회계사)  
이소영 감사(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소장단

권기태 소장권한대행-부소장

### 후원사업과 모금을 통해 희망제작소의 재정을 지원하는 '후원사업팀'

이원혜 팀장 | 02-2031-2186 | topcook@makehope.org  
김희경 선임연구원 | 02-2031-2130 | hlhmp@makehope.org  
박다겸 연구원 | 02-2031-2170 | alexiapark@makehope.org

### 더 나은 삶을 위한 국가의제를 연구하는 '사회의제팀'

옥세진 팀장 | 02-2031-2164 | cheriras@makehope.org  
이은경 연구위원 | 02-2031-2120 | ekleee@makehope.org  
김현수 선임연구원 | 02-2031-2193 | ddackue@makehope.org  
황세원 선임연구원 | 02-2031-2195 | joonchigirl@makehope.org

### 지역의 자립 및 자치를 위한 정책대안을 만드는 '지역정책팀'

김지현 팀장 | 02-2031-2163 | kimjihun@makehope.org  
오지은 선임연구원 | 02-2031-2160 | agnes@makehope.org  
임은영 선임연구원 | 02-2031-2194 | ley@makehope.org  
안수정 연구원 | 02-2031-2146 | sooly@makehope.org  
이다현 연구원 | 02-2031-2161 | mangkkong2@makehope.org

### 시민주도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시민사업팀'

강현주 팀장 | 02-2031-2125 | hyunjukang@makehope.org  
백희원 연구원 | 02-2031-2102 | baekheewon@makehope.org  
조현진 연구원 | 02-2031-2199 | heyjayzo@makehope.org

###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지속가능발전팀'

인은숙 팀장 | 02-2031-2126 | bada999@makehope.org  
박홍석 선임연구원 | 02-2031-2187 | forus100@makehope.org  
정환훈 연구원 | 02-2031-2180 | hydroj90@makehope.org  
송하진 연구원 | 02-3140-8036 | ajsong@makehope.org  
조준형 연구원 | 02-3140-8035 | jh.cho@makehope.org

###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목민관클럽팀'

정창기 팀장 | 02-2031-2197 | mayday3@makehope.org  
송정복 연구위원 | 02-2031-2113 | wolstar@makehope.org  
이민영 선임연구원 | 02-2031-2190 | mignon@makehope.org

### 희망제작소와 사회를 잇는 '미디어홍보팀'

유혜승 팀장(겸직) | 02-2031-2183 | hsyoo@makehope.org  
방연주 선임연구원 | 02-2031-2184 | yj@makehope.org  
최은영 선임연구원 | 02-2031-2185 | bliss@makehope.org

### 웹을 기반으로 희망제작소와 시민을 연결하는 '웹팀'

안영삼 팀장 | 02-2031-2152 | sam@makehope.org  
오승화 연구원 | 02-2031-2119 | uncia@makehope.org

### 희망제작소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기획팀'

유혜승 팀장 | 02-2031-2183 | hsyoo@makehope.org  
양이현경 연구위원 | 02-2031-2135 | hkyl@makehope.org

### 희망제작소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경영지원실'

정은숙 실장 | 02-2031-2198 | road0115@makehope.org  
한현숙 연구위원 | 02-2031-2191 | ssunday@makehope.org  
박정호 연구원 | 02-2031-2192 | coala@makehope.org

### 육아휴직 중, 희망을 키우고 있어요!

권성하 선임연구원  
황현숙 연구원

### 위탁운영

수원시평생학습관



##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희망제작소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실천을 함께 해주세요.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함께 일상의 실천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산하고 사회를 바꾸는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 되면,

- ★ 희망제작소가 주최하는 포럼, 콘퍼런스에 참석해 공공의 주제를 함께 배우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 ★ 희망제작소의 연구성과물을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 희망제작소의 발간도서 구입 및 프로그램 수강 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 희망제작소의 연간사업 활동을 정리한 활동보고서를 매년 보내드립니다.

● 후원회원 가입문의  
02-2031-2130 give@makehope.org

●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 : (재)희망제작소  
www.makehope.org

세상의 모든 희망을 만들고 나누는 곳,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꿈을 응원합니다.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